



언어의 배는 좋은 상상력을 만나 춤추듯이 나아간다..

상상력은 구석방이다.. 혼자서 쓸쓸한

아픈 현실을 누이고 나는 발톱을 키우고..

잠든 머리는 말같이 달린다..

아카데미한 말이여 인식이여 독수리처럼

날 아 라..

아주인사이트 2019 가을호
총권 29호

아주대학교

시간 속에 새겨지는 자랑스런 50년
마음 속에 다짐하는 아주비전 50년
세상을 이끄는 세계 중심대학으로-
연결지성의 세계적 플랫폼으로-
대학을 바꾸는 대학에서
세상을 바꾸는 대학으로 나아갑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가까이 즐거운 일이 있다면 도서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학생들과 책을 읽는 '총장 북클럽'입니다. <라틴어 수업>, <다산과 추사, 유배를 즐기다>, <인생극장>, <모두 거짓말을 한다>, <펜의 힘>, <어쩌면 우리가 거꾸로 해왔던 것들>, <커피 세계사>, <팩트폴니스>,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 <보통 사람들의 전쟁>, <이기적 유전자> 등이 그동안 우리가 읽은 책입니다.

장르를 불문하고 경계를 넘는 북클럽은 편집자를 직접 만나 속내를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인생극장>을 쓴 노명우 교수님은 함께 읽고 싶은 책을 큐레이션해서 인생 서점을 열기도 하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전쟁>의 저자인 앤드류 양은 미국 대통령 선거의 후보가 되어 언론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번 학기에 우리 학교 석좌 교수로 오신 김영란 교수님의 신간 <판결과 정의>도 함께 읽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과 해답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역사서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과거는 지나간 현재이고 미래는 이미 왔을지 모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세상에 많은 길이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이제 학기가 끝나고 올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이번 방학에는 '내 인생의 책' 리스트를 만들어볼까요? 어쩌면 읽었을 법한 책, 그러나 솔직히 섭렵하지 않은 책 목록을 만들어 도전해보면 어떨까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새해에는 파엘로 코엘료의 <연금술사>로 엮니다. 이미 읽은 책일지도 모르고 너무 유명해서 읽었다는 생각이 드는 책일지 모릅니다. 다시 읽어도 인생의 또 다른 길이 보이는 책입니다. 한 우물을 깊이 파기보다 열 개의 다른 우물을 파는 것이 물을 찾기에 수월합니다. 도전할수록 성공할 가능성이 커지니까요. 벌써 마음은 새해에 달려가 있습니다.

열 개의 우물에서 물 길기

총장북클럽에서
'내 인생의 책' 목록을 만들며

총장 박형주 



02 프롤로그

열 개의 우물에서 물 길기

14 PHOTO ESSAY

아프도록 아름다운 곳을 보러 신현림 시인

28 AJOU STAR 3

내게 세상과 사람, 진리를 가르쳐준 다큐멘터리의 세계 장강복 PD

38 COLUMN

이제 건축학과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48 NEWS

04 AJOU POWER

아주비전 4.0 5대 전략 High-impact 연구허브 구축

16 AJOU FUTURE

누구나 영재로 태어나 펼쳐낼 재능이 있다 아주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32 GLOBAL ALUMNI MESSAGE

내면의 변화를 이끌어준 곳, 아주대 이지환 동문

41 AJOU SPECIAL PROJECT

아주대인이려면, 단돈 1,000원으로 든든한 아침!

52 DONATION

06 AJOU POWER

전문가에게 듣는/한눈에 보는/숫자로 보는 High-impact 연구허브

20 AJOU STAR 1

엘리트 카르텔 시대, 정의를 말하다 김영란 석좌교수

34 CONNECTING THE WORLD

아주강좌 400회, 총장이 떴다!

42 AJOU PEOPLE

12 AJOU POWER

내일을 선도할 핵심 기술 육성

24 AJOU STAR 2

인생에선 '플랜B'도 중요합니다! 신유리 동문

36 ALUMNI

엄마와 아이의 꿈을 함께 키워나가는 (주)비스토스 이후정 대표이사

44 RESEARCH NEWS

CONTENTS

언어의 배는 좋은 상상력을 만나 춤추듯이 나아간다
상상력은 구석방이다. 혼자서 쓸쓸한

아픈 현실을 누이고 나는 발톱을 키우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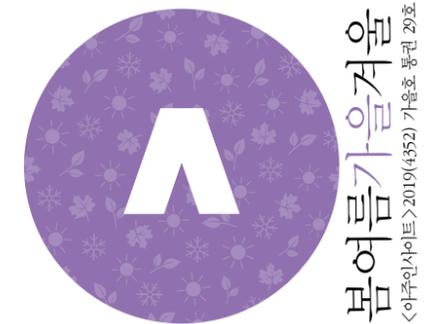
잠든 머리는 말같이 달린다
아카데미한 말이여 인식이여 독수리처럼 날 아 라
신현림 시인·사진작가

CREDITS

PUBLISHER president 박형주
EDITOR office of communications 정말희, 권지영, 변재우
PHOTOGRAPHER sssaunastudio 김성재, 이대원, 박성수
Edit & Design plus81studio
SUPERVISOR office of communications 이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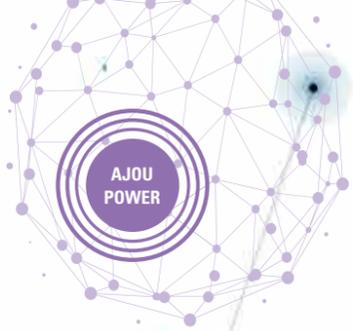
<AJOUINSIGHT> 이 간행물 내용중 상의 후 복제 및 전제를 환영합니다.
<AJOUINSIGHT> 구독이나 수신거부·주소 변경은 이메일(hongbo@ajou.ac.kr)로 요청바랍니다.

1649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Tel.031-219-2114
Copyright © 2019 Ajou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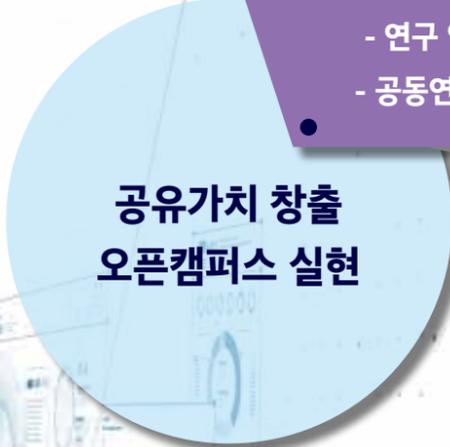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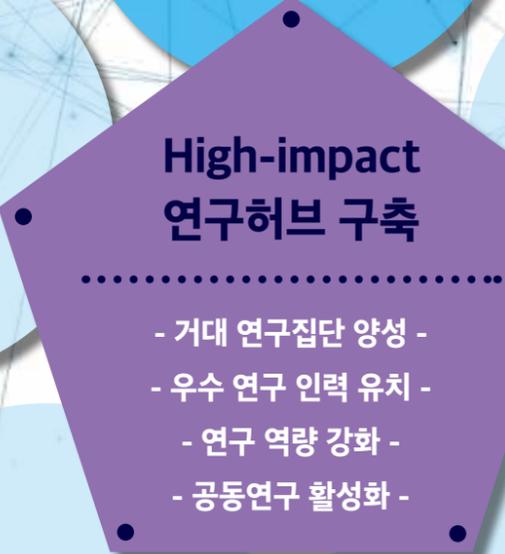


AJOUINSIGHT.
AJOU UNIVERSITY QUARTERLY MAGAZINE 2019 09|10|11 Vol. 29

봄여름가을겨울
<이주인사이트> 2019(4352) 가을호 통권 29호



아주비전 4.0 5대 전략 High-impact 연구허브 구축 세계적 수준의 지적 자산 창출



CONNECTING MINDS

‘연결지성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학’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교육과 연구, 캠퍼스 문화 등에 대한 지향과 다짐을 담은 아주비전 4.0. 그 5대 전략 중 하나인 ‘Hi-impact 연구허브 구축’의 궁극적 목표는 ‘사회적 공유가치 창출’이다.

아주대는 최근 세계적인 과학저널 <네이처>의 대학평가에서 주목할 만한 세계 100대 신흥대학에 선정됐다. 특히 세계 순위 54위, 국내 대학 가운데 종합대학 1위를 차지했다.

이번 평가는 대학이 국제 유력 학술지 82곳에 게재된 논문에 대해 연구자와 소속 기관의 기여도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올해 처음 진행됐다. 이렇듯 세계 수준의 대학으로 우뚝 선 아주대는 연구 분야 집중 투자와 활성화로 창의적 첨단 지식 창조에 기여하고 있다.

‘High-impact 연구허브 구축’ 추진 과정

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세계 수준의 거대 연구그룹을 육성한다. 우수 연구 인력 유치를 위한 신입교원 연구비 지원 강화, 우수 교원 초빙, 대학원 특성화와 질적 평가 기반의 연구지원 제도 및 교원 인사제도 개편, 우수연구그룹 발굴,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추진한다.



연구허브 구축으로 대학의 미래를 이끈다

기존에도 대학에서 연구는 계속됐습니다. '하이임팩트 연구허브 구축'이란 쉽게 말해, 무엇을 추구하는 것이고 달라지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연구 방법은 놀라운 발전을 보입니다.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증가하며 이를 분석하는 기술 또한 상상, 그 이상의 속도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의 연구 활동 및 성과를 DB화하고 이를 활용한 연결연구를 추진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연구 성과 분석 솔루션을 활용하여 데이터 기반 연구 성과를 분석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오히려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주대에서는 이러한 연구 허브를 구축하여 대학에서의 연구 수월성을 확보하여 영향력 있는 연구 성과를 도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구의 중요성은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최근에는 기업들이 사실상 연구를 통해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데, 대학 기관에서의 연구가 기업과 견주어 어떤 점이 더 나을 수 있을까요?

대학에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존재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최근 인공지능(AI), 스마트 자동차, 빅데이터 연구들이 유망 분야로 떠오르지만, 관련 전문가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분야가 뜨는 분야가 되리라는 것을 예측하기 어려웠음을 반영합니다. 실제 미래학자나 여러 전문가가 미래 전망을 예측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그러므로 대학에서는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고 기업은 당장 이윤 추구가 가능한 분야에 투자하게 됩니다. 이런 분야는 굳이 정부에서 대학을 통하여 투자하지 않아도 기업이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연구허브 구축'이라는 말은 학생들에게 생소하게도, 어찌 보면 거창하게 들리기도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어떤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최종적으로 아주대가 이를 통해 지향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 아주대 주일로 연구처장이 이 같은 의문에 답한다.

정리 박예슬 / 사진 김성재

연구허브 구축을 위해 거대 연구집단 양성, 연구평가 방식 조정 등을 추진한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전략이 궁금합니다.

전략 과제 중 대표적인 것이 거대 연구집단 양성입니다. 연구는 다른 영역하고도 협조해야 실효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남들이 뭘 하고 있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교외의 연구 트렌드도 어떤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개인이 아닌 전체가 같이 올라가는 건 늘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집단부터 하나씩 키워나가려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 교수님들이 자기 혼자 골방에 있는 것에서 벗어나서 다른 분야나 사람들과 연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장려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예를 들면 기계공학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데이터사이언스, 사고 예방을 위한 의학, 법학 연구자들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학문 간 경계를 넘는 연구자와 집단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연구 혁신을 추구하기 위해 아주대학교는 연구평가 방식을 기존 양적 기준에서 질적 기준의 평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학교는 질적 연구 기준인 인용(Citation)을 신선했습니다. 열정있는 연구자를 육성하기 위해 신입교원 정착연구비를 이공계는 최대 1억, 인문계는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는 파격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량있는 신진연구인력(Post-doc) 육성을 위해 신진연구자 지원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연구 환경이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혜택이 당장 주어지는 것인가요?

우선 BK 사업은 대학원에서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하므로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소프트웨어와 AI 대학원의 경우도 석박사 학생들이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해 주는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대학에서의 교육과 연구는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대형 사업단이나 연구를 유치하게 되면 학생들이 이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교육은 교수가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지식을 주입하는 게 아니라 학생이 생각하고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연구 프로젝트는 학생이 참여함으로써 가능한 것이기에 우리가 시스템을 바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교육은 아마 굉장히 달라져야 할 겁니다. 대학이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교육에 투자하는 부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교육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통해서 재정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교육 환경도 바꿔나갈 것입니다. 우리 연구처가 작지만 앞으로 확대되어야 하는 중요한 부서인 이 유입니다.

'연구허브 구축'을 통해 아주대 연구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하시나요?

대학의 사명은 교육, 연구, 봉사입니다. 특히, 경쟁이 심화되고 변화를 넘어 혁신이 요구되는 미래에서, 연구는 교육과 봉사를 아우르면서 그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들은 대학이 연구를 통해 대학 경제와 국민 경제에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통한 창의력 양성으로 교육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연구의 성과물인 주요 기술들은 산업화를 통해 재정 확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역량이 뛰어난 교수와 잠재력을 가진 학생들이 많은데 이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연구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연구처가 할 일이 많이 보입니다. 각 교수가 진행하고 있는 개인 연구는 당연히 기초가 되지만 우리 대학의 슬로건인 '커넥팅 마인즈(connecting minds)'에서도 나타나듯이 미래는 연결지성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를 위한 전략의 하나로 우수 연구집단을 발굴하고 지원하고자 합니다. 연구허브 구축은 연구집단을 구축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돕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대학의 연구가 국가적, 사회적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주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예를 들어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학의 연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난제는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한 미세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및 천연실업 해결 등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대학의 규모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어느 정도 집중과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는 산학협력 특화 분야를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육성 후 이를 확대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특화 분야로는 바이오·헬스케어, 스마트 모빌리티, 신재생에너지, AI·빅데이터를 선정하여 이를 구축하고 확장하는 추진 전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점 연구분야 센터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지역기업 연계 특화센터를 구축하여 기술개발과 창의적 자산 기술이전, 산학공동 기술개발 과제 수행, 재직자 교육, 기술사업화 및 창업, 시제품 제작 지원, 기업친화형 특화분야 핵심인재양성 프로그램 제공 등 다양한 사업이 가능하며 실제로 단계적으로 이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A



주일로

연구정보처장
의과대학 교수



한눈에 보는 High-impact 연구허브

하이-임팩트 연구허브 구축을 통해 아주대는 이미 여러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로 과학기술 역량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 있는 연구 허브 성과를 한데 모았다.

[미세먼지] 환경안전공학과 김순태 교수



한국연구재단 지원
3차원 광화학 모델을 이용한 미세먼지 국내의 기여도 및 배출 저감 효과 분석

대기질 관리를 위한 주요 기초자료인 국내의 기여도, 주요 대형 점오염원 및 산업단지의 초미세먼지 기여도를 보다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도출해내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 목표다. 3년의 연구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다양한 기여도 분석 결과를 종합해 주요 배출원 및 배출 지역에 대한 결과를 제시할 계획이다. 이로써 배출량-농도 원단위 산정을 통해 배출저감 계획 효과 분석과 향후 개선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환경과학원 지원
대기질영향예측시스템(K-MEMs) 구축 연구

대기환경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대기질 모델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에 기상-배출량-화학반응을 고려해 지역 규모에서 원인과 개선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기질영향예측시스템 (K-MEMs: Korea-Monitoring Emission Modeling system)'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대기질영향예측시스템을 활용한 다양한 분석을 통해 과학적인 대기환경관리 정책 수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한다.

#기상모사 문제점 파악 #대기오염물질 배출량(CAPSS) #NH3민감도평가

[대형과제] 대학원 분자과학기술학과 김용성 교수



삼성전자 미래기술육성센터
환자 간 돌연변이 차이를 극복하는 범용 치료용 항암백신 개발

현재 항암백신 기술은 같은 종양이라도 암세포 간의 이질성과 환자 간 종양 이질성으로, 개별 환자의 암특이 신항원을 동정하고 규명하는 어려움과 개별 환자의 신항원에 따른 개인 맞춤형 백신을 만들어야 하는 낮은 확장성과 고비용 문제가 있다. 개발될 범용 항암백신 기술은 기존 개인맞춤형 항암백신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는 차세대 항암백신 기술로, 다른 면역 항암 요법과 병용치료도 가능해, 암치료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혁신기술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항암백신 #암특이항원 #범용 항암백신 기술 #암치료 효과 극대화 #혁신기술

[국방] 소프트웨어학과 임재성 교수



국방과학기술연구소 지원
미래전투체계 네트워크기술 특화연구센터

네트워크 중심전 환경에서 요구되는 전술통신네트워크 핵심 기술, 사이버 통신전 핵심기술, 미래 신매체 전송기술 등 다양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 또한 미래 전술네트워크 기술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산학연 협력 체제를 구축해 국방 무기체계 획득 및 자주국방에 기여한다.

#전술네트워크 구조 및 진화모델 #전술통신네트워크 핵심기술 #사이버통신 핵심 기술

[빅데이터] 의학과 박래웅 교수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 지원
CDM기반 바이오헬스 통합 데이터망 기관확장 구축 기술 개발

총 62개 중·대형 의료기관의 전자 의무 기록을 공통 데이터 모델로 표준화, 익명화하여 개인정보 유출 없이 여러 기관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다기관 연구망 구축사업. 각 의료기관이 보유한 각종 의료정보를 국제 표준화해 연구자나 기업, 정부 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 표준화된 분석코드로 데이터가 분석, 제공되어 개인정보 침해 없이 다양한 연구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손쉽게 빠르게 얻을 수 있다.

#CDM(Common Data Model) #바이오헬스 #통합 데이터망

[기술이전] 대학원 분자과학기술학과 이분열 교수



'1-옥텐 및 1-헥센 제조 촉매기술'
(쉴레피씨아이로 이전)

본 기술은 고가의 MAO(메틸알루미늄옥산)를 사용하지 않는 촉매 제조에 관한 것으로, 촉매 단가를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추고, 안정적 공정 운영을 담보한 기술이다. '1-옥텐'과 '1-헥센'은 국내에서 매년 10만t 이상 사용되나 현재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에스피씨아이에서 이전기술을 사용, 양산해 해외 제조업체에 납품하거나 국내업체의 LAO(LAOlinear α -olefin : 선형 알파-올레핀) 생산 설비 신설을 촉발해 매년 50억~100억 원의 매출 창출과 LAO 자체 생산으로 우리나라 석유화학 업계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1-옥텐 #1-헥센 #MAO #LAO 극대화 #혁신기술

[신소재] 대학원 분자과학기술학과 김문석 교수



한국연구재단 지원
자가힐링 펩타이드 모티브 바이오메디컬 신소재 개발

미래 신소재 디스커버리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본 연구는, 자가힐링 바이오메디컬 신소재 개발과 청각전구세포(ear progenitor cell) 활성화로 조직재생의 실시간 이미징 검증이 가능한 신개념 자가힐링 펩타이드 모티브 바이오메디컬 신소재 개발을 최종 목표로 한다.

#펩타이드 #모티브 #청각전구세포 #생체환경 #자극감응 #방출조절 #실시간 전구세포 이동 #이미징 #조직재생 #모니터링 #바이오메디컬 #신소재 자가힐링

[신소재] 건설시스템공학과 서형탁 교수



한국연구재단 지원
Mott 소스-Si 채널 이종접합 구조 기반 Tunneling-FET/MOSFET
가변형 Hybrid-Mott TFET(MTFET) 신소재 개발

터널링 전계효과 트랜지스터(TFET, Tunneling Field-Effect Transistor)를 기반으로 한 소재개발 연구. 기존 Si 기반 MOSFET의 한계를 극복하고, TFET의 낮은 온 전류의 증가를 Mott 물질의 금속-부도체 전이(MI transition)의 특성을 적용하여 달성한다. 최종적으로는 기존 Si CMOS 공정과 호환성이 높은 Hybrid-Mott TFET(MTFET) 최종 개발을 목표로 한다.

#모트 전이 #터널링트랜지스터 #가변형 #이종접합 #금속-비금속 전이 #밴드갭 제어

CONNECTING MINDS

Ajou Quarterly Magazine 2019 Fall Vol. 29



숫자로 보는 High-impact 연구허브

아주대는 날마다 연구 성과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그 눈부신 기록을 숫자로 알아본다.

1^위 / 54^위

과학저널 <네이처> 대학평가
국내 1위, 세계 54위
'주목할 만한 세계 100대 신흥대학' 선정
국내 종합대학 1위, 세계 순위 54위



2018년 기술이전 수입료 21.3억원
2017년 기술이전 수입료 19.6억원으로
11위에서 2018년 21.3억원으로 10위권 진입

21.3^{억원}

1,128^{억원}

2018년 수주연구비 1,128억원
경기도 대형과제 '광-의료 융합 기술 연구센터' 76억원,
전임교원 퇴직후 대형연구 지속수행
'저비용·고효율의 노후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기술개발 및 실증' 27억원,
국외과제 'Heterodimeric-Fc IL 12
개발 연구' 5.6억원 등

19^건

2018년 개인과제 최다 19건 수주
의학과 조준필 교수,
2018 대구 수성구 국제안전도시 사업 업무지원 기본협약,
2018-2019 부여군 국제안전도시 사업 업무지원 기본협약
2018-2019 공주시 국제안전도시 사업 업무지원 기본협약 등 19건



2019년 신규 대형 과제 96억원 수주
교육부 대학 부설연구소지원 분자과학기술연구센터 53억원,
연구장비 공동활용 '3차원 면역시스템 이미지 핵심연구지원센터 43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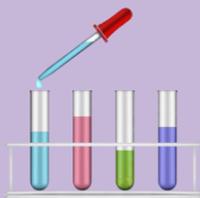
96^{억원}

1.3^건

2018년 전임교원
일인당 연구비 1.4억원 수주
2018년 전임교원 인당 과제 1.3건 수주



1.4^{억원}



25^{억원}

2018년 개인별 최대 연구비 25억원 수주 (정보공시 기준)
응용화학생명공학과 김용성 교수 24.9억원 / 의학과 박해심 교수 17.7억원
환경안전공학과 김순태 교수 15.7억원 / 전자공학과 이교범 교수 13.8억원
의학과 조남한 교수 11억원 등



2018년 수주과제 1,105개

1,105^개



내일을 선도할 핵심 기술 육성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를 양성해 세계적 수준의 지적 자산을 창출하고 있는
아주대학교. 그 핵심 역량을 대변하는 두 곳을 소개한다.

글 이현주 / 사진 이대원

클린룸 활용, 반도체 공정교육으로 전문 인력 양성

이종욱

전자공학과 교수

아주대 종합설계동 1층에는 국내 타 대학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바로 반도체 공정실습실, 일명 클린룸이다. 물론 클린룸이 설치된 대학은 국내에도 더러 있다. 그러나 이곳이 특별한 이유는 하드웨어를 채우는 소프트웨어, 반도체 공정 교육과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학원생이 아닌 학부 4학년생이 반도체 소자를 직접 만들고 측정까지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대학에서 학생들은 참관만 가능하지요. 연구가 아닌 교육적인 측면에서 클린룸을 운영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반도체 공정 교육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이종욱 교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NEC 등에서 30여년간 근무한 반도체 장인이다. 그가 2014년 아주대 전자공학과에 부임하며 반도체 공정을 매주 단계별로 진행했고, 덕분에 구조적인 이해와 실습이 동시에 가능해졌다. 여기에 고용노동부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일환으로 클린룸 시설이 학교와 공공 투자로 구축되면서 2018년부터 반도체 표준 공정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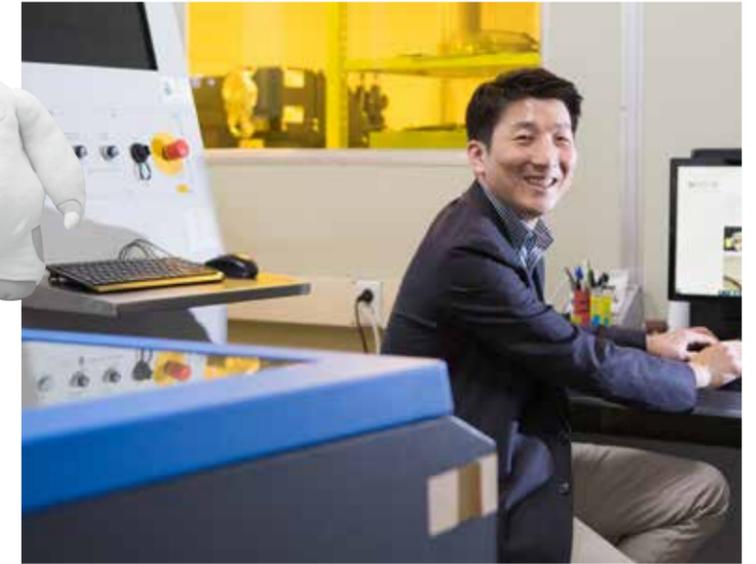
이 교육 과정은 아주대 재학생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 재직자나 구직자 등 일반인도 수강이 가능하다. 아주대 전자공학과, 공과대학·자연대학 재학생의 취업 경쟁력 강화뿐 아니라, 반도체 분야 전문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과 산업체 인력난 해소, 기업 경쟁력 강화에 이르기까지 큰 몫을 하는 것이다. 이종욱 교수는 향후 중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분야로 반도체를 꼽았다. 반도체는 오늘날 전자산업의 기본이 되는 기반 기술이다. 그만큼 전문 인재 육성이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아주대는 앞으로도 그 중추적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미래 생체로봇 탄생의 산실

고제성

기계공학과 교수



영화 속에서도 많이 보았고 그 이름도 매우 익숙한 ‘로봇’. 그런데 일상에서 실제로 로봇을 만나기는 쉽지 않다. 개인용 자동차, 개인용 컴퓨터는 있는데, 왜 아직 개인용 로봇은 없을까. 때로 영동한 상상이 진지한 연구 주제가 되기도 한다. 아주대 기계공학과 고제성 교수는 누구나 개인용 로봇 하나쯤은 가진 날을 꿈꾸며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로봇이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려면 소재가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워야겠지요. 그것에 바로 제가 만들고 싶은 로봇입니다. 애니메이션 <빅히어로>에 나오는 풍선로봇 ‘베이맥스’랑 비슷하다고 할까요.”

고제성 교수가 현재 연구 중인 로봇은 일명 ‘생체모방로봇’이다. 그는 2014년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하버드대학 마이크로로보틱스 연구실을 거쳐 2017년 아주대 기계공학과에 임용되었다. 고제성 교수는 이미 로봇 개발로 유명 학술지 <사이언스(Science)>와 <사이언스 로보틱스(Science Robotics)>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대에서 개발한 소금쟁이 로봇과 하버드대 공과대학 연구팀과 개발한 초소형 델타로봇, 배터리 없이 구동하는 종이접기 로봇이 그것이다.

그런 그가 아주대에서 생체모방로봇을 연구하고 있는 것은 앞서 밝혔듯 사람과 가까운, 우리 생활에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로봇을 만들고 싶어서다. 이 연구가 가능했던 것은 아주대 기계공학과에 강대식, 한승용 교수와 더불어 ‘생체모방공학 클러스터(Multiscale Bio-Inspired Technology Laboratory)’가 꾸려진 덕분이다. 센서와 일렉트로닉스, 로봇 전문가가 모여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연구팀이다. 고제성 교수는 앞으로 5년 후에는 그의 연구가 결실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데 늘 예상보다 세 배는 더 걸렸다고 하니, 15년쯤 후에는 말랑말랑한 촉감을 가진 생체모방로봇이 가정과 의료계는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지 않을까. 아주대는 고제성 교수를 비롯한 생체모방공학 연구팀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다. 덕분에 생체로봇 기술 선점과 혁신적인 연구 성과도 그의 예상보다 훨씬 빨리 확인할 수 있을 듯하다. **A**



아프도록 아름다운 것을 보러 나는 이곳에 왔다
짐승과 사람들이 어울려 물 마시는 곳
빛과 물을 따라
마냥 흘러가다 함께 밥 지어 먹는 곳
사랑이 시작되는 한 편의 시를 만나러 왔다

사랑의 언어가 바꾸는 세상을 보러 왔다

언어의 배는 좋은 상상력을 만나 춤추듯이 나아간다
상상력은 구석방이다. 혼자서 쓸쓸한
아픈 현실을 누이고 나는 발톱을 키우고
잠든 머리는 말같이 달린다
아카데미한 말이여 인식이여 독수리처럼 날아라

녹색 별관이 사자의 등처럼
끝없이 굽어치는 시를 나는 써야겠다
애냥는 여인같이 내 몸은
뒤척이는 바다를 향해 열려 있다

아프도록 아름다운 곳을 보러



신현림 경기 의왕 출생이다. 아주대 국문학과 졸업 후, 상명대 디자인대학원에서 파인아트를 전공·졸업했다. <현대시학>으로 데뷔해 전방위적인 작가로, 시집 <지루한 세상에 불타는 구두를 던져라>, <세기말 블루스>, <해질녘에 아픈 사람>, <침대를 타고 달렸어>, <사과꽃 당신이 올 때>를 펴냈다. 사진작가로 <아!我,인생천란 유구무언>, <사과, 날다>, 일본 코토 게이분샤 서점과 갤러리에 채택된 사진집 <사과여행>이 있다.



초롱초롱한 눈빛의 초·중등학생 36인이 아주대학교 캠퍼스플라자의 메이커 스페이스에 속속 모였다. 지난 11월16일 토요일, '2019 교육원간 교육인정제-메이커 영재 교육'에 참가하러 온 이들은 처음 보는 사이임에도 수학과 과학이라는 공통된 관심사로 금세 친구가 되었다. 이날 어떤 교육이 진행됐는지, 함께한 이들의 생각은 어땠는지 들여다본다.

글 권라희 / 사진 박성수

누구나 영재로 태어나 펼쳐낼 재능이 있다

아주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2019 교육원간 교육인정제 - 메이커 영재 교육



과학과 수학으로 상상하고 만들고 공유하는 시간

"우리는 페가수스를 테슬레이션 퍼즐로 만들어보면 어때? 근데 곡선 계산이 꽤 어렵겠네?!"

메이커스페이스에서 처음 보는 각종 3D 장비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눈을 반짝이던 학생들은 저마다 다른 상상을 펼쳐며 어느새 자연스럽게 토론을 이어갔다. 궁금한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친구들이 한데 모여 머리를 모았다.

아주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은 이번 '2019 교육원간 교육인정제'를 준비하면서 메이커스페이스 공간과 장비를 활용해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사고하면서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메이커 영재 교육'을 기획했다. 3D프린터와 레이저 커터,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테슬레이션 퍼즐과 3차원 입체 도형을 직접 만들어보는 수업이다. 이번 교육에는 아주대, 가천대, 대진대 3개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총 36명의 학생들이 함께 했다. 초등부는 테슬레이션을 이용한 직소퍼즐 만들기를, 중등부는 3차원 입체 도형 만들기를 하루 8시간에 걸쳐 진행했다.

초등 정보융합반을 맡은 오규환 교수는 이번 수업의 열쇳말을 '메이커', '퍼즐', '수학적 사고', '아트'로 잡고 응용미술 전공의 이은진 교수와 협업으로 수업을 진행했다. 벡터그래픽 프로그램으로 퍼즐을 디자인하고 레이저커터로 MDF를 조각커팅한 뒤 컬러링 등 아트 작업을 통해 자신만의 테슬레이션 퍼즐을 만드는 활동으로 구성됐다.

중등 논문사사반을 맡은 하영화 교수는 퓨전 360 프로그램으로 도형을 모델링하고 레이저커터로 하드보드지를 커팅한 뒤 면과 면을 이어 붙여 입체도형을 완성하는 수업을 진행했다. 모델링 과정부터 수학적으로 도형의 특성을 파악해 입체적으로 완성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이 두 과정은

그야말로 STEAM(과학(S), 기술(T), 공학(E), 수학(M), 예술(A)) 요소에 메이커(M)를 융합한 활동이었다.

과학영재교육원의 담당 교수들은 이날 교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전에 메이커스페이스에서 수업 전반을 시연해보며 세부 내용을 점검하는 등 심혈을 기울였다. 덕분에 학생들은 체계적으로 진행된 과정 안에서 집중력 있게 몰입하면서도 즐겁게 활동하는 모습이였다.

융합 그리고 메이커

<2019 교육원간 교육인정제>는 과학영재교육원 학생들이 협약을 맺은 다른 교육원에서 다양한 수업을 받으며 새로운 경험을 하고 동시에 그 시간을 교육 시수로 인정받는 제도다. 각 교육원은 이를 통해 우수한 교육 자원을 공유하고 상호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는다. 이번 교육은 아주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이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후원했다.

아주대 과학영재교육원은 이번 <교육원간 교육인정제>를 통해 운영 중인 수업을 외부에 공개하는 데서 나아가, 향후 메이커를 기반으로 한 영재 수업을 개발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사실 그간 각 영재교육원에서 진행되어온 교육 모델은 다소 한계가 있었다. '메이커 교육'은 기기 사용법을 안내하는 데 머물렀고 'STEAM 융합교육'은 원리 탐구나 체험에 그쳤다.

이번에 아주대 과학영재교육원에서 진행된 '영재 메이커 교육'은 이 두 가지 교육의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결합해 만든 과정이라 최종 완성형 교육 모델로 평가받는다. 이는 국내 최고 수준의 아주대학교 첨단 메이커스페이스 시설과 유능한 운영 인력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



최수영

과학영재교육원 원장
수학과 교수

interview

누구나 보석이 될 수 있어요!

영재성이 발현되는 시기는 사람마다 달라요.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영재성을 펼칠 기회조차 없는 것 같아 안타까워서 아주대 과학영재교육원에서는 일반 학생에게도 영재 교육에 동참할 기회를 열어두려고 하지요. 영재는 탁월한 성취를 이룰 가능성을 가진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지, 특정 분야에서 특출한 능력을 가진 사람만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신에게 잠재된 가능성을 발견하는 첫 걸음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에 호기심을 갖고 흥미를 느끼는 분야를 찾는 거예요. 여러 분야의 지식을 연결해 문제의 해법을 찾는 고민을 하다보면 누구나 미래 사회를 이끄는 '연결형 인재'가 될 수 있어요.



아주대학교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을 시작하면서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알리는 가치 확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아주대 과학영재교육원은 이번 '영재 메이커 교육'에서 얻은 결과를 기반으로 이후 보다 좋은 교육 모델을 개발하고, 이러한 교육을 영재원 학생뿐 아니라 외부 학생들에게도 제공할 계획이다.

다채로운 영재교육을 펼친 한 해

아주대 과학영재교육원은 올해 심화교육과 체험교육, 융합탐구교육이 조화를 이룬 다양한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대표적으로 심화수업, 사사연구 등 심화교육, 화성탐방, 영월과학탐방 등 체험교육, 초등학교 코딩교실, 아주영재융합페스티벌, 주제별 융합교육 등 융합탐구교육이 운영됐다.

특히 지난 8월3일에는 <제1회 폴리매스데이>를 과학 전문잡지 <수학동아>와 공동 운영해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폴리매스 프로젝트는 온라인(www.polymath.co.kr)에 수학 문제를 공개하면 여러 학생이 댓글로 소통하며 푸는 청소년 수학 공동 연구이다. 이날 아주대학교 울곡관 대강당에 초중고생 335명이 모여 집단 지성을 통해 수학적 문제를 도전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은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박형주 총장도 참석해 대중 강연을 펼치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또한 <아주 영재융합 페스티벌>에서는 영재원 졸업생을 초청해 재학생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건네 좋은 반응을 얻었다. 더불어 아주대 과학영재교육원에서는 '호기심 편지(Curious Mind Letter)'라는 통신 강좌를 제작해 재학생뿐 아니라 개별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알찬 교육 자료도 제공하고 있다.

mini interview



**테슬레이션을 이용한 직소퍼즐 만들기
오규환 교수**

실패를 통한 배움이 크지요. 전문가의 반열에 오른 사람은 그 분야에서 가장 많은 실패를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학생들이 과학영재교육원에서의 교육을 통해 무수히 실패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며 무엇을 배웠는지 곰곰이 생각하며 더 발전해가기를 바라요.



**3차원 입체 도형 만들기
하영화 교수**

평소 접해보지 못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자율적으로 탐구하는 경험을 얻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융합을 통해 문제를 발견하고 끈기있게 해결하는 힘을 기를 수 있게, 우리는 근본을 이해하는 교육을 앞으로도 만들어갈 겁니다.



이근형
효천초등학교 6학년
퍼즐처럼 똑같은 모양의 도형을 빈틈없이 맞물리도록 수학적으로 계산하고 레이저기공기로 커팅해서 색칠까지 해보니 더욱 재밌었어요. 친구들이랑 얘기해서 심슨이랑 페기수스 테슬레이션을 만들었는데, 하다 보니 오류가 있어서 수정도 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김미령
성북중학교 1학년
각 평면에서 다른 축이 만나는 지점을 생각하면서 3차원적 설계를 하니까 재밌었어요. 더구나 제가 모델링한 것을 3D프린팅 모형으로 뽑아내 볼 수 있어서 더욱 좋았어요. 다음 교육에는 도안부터 각자 원하는 모형으로해보면 보다 흥미로울 것 같아요.

아주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올해 개원 22주년을 맞이한 아주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은 1998년 7월 과학영재교육센터로 개소해 국내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2019년 1월 배출한 21기 수료생은 195명이었고, 22기 입학생은 162명이었다. 위상수학자이자, 대한수학

회 올림피아드 사업 이사로서 영재 교육의 경험이 많은 최수영 과학영재교육원장이 올해 3월부터 부임해, 아주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의 가치와 활동이 보다 널리 알려지고 또한 앞서가는 영재 교육을 실현하기를 바라는 박형주 총장의 뜻에 발맞추고 있다.

“ 이상적인 교육은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고 공동체에서 제 역할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본다. 대학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사유할 방법을 가르쳐주는 곳이어야 한다. ”



김영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전 대법관

아무도 손해를 보면서 살고 싶지는 않을 테다. 우리는 흔히 자신의 관점에서 '정의로운 사회'를 정의(定義)하곤 했으며, 이 시대에서 '정의'라는 키워드는 늘 높은 관심의 대상이었다. 이 가운데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으로 우리 사회의 정의 확립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를 받는 김영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전 대법관)가 이 키워드를 직접 언급했다. 2019년 9월 신간 《판결과 정의》를 세상에 내놓은 것이다. 그가 전하고 싶은 정의의 참뜻은 무엇일까.

글 박예슬 / 사진 이대원

엘리트 카르텔 시대, 정의를 말하다

지난 8월 아주대 석좌교수로 위촉돼 9월부터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강의를 맡고 있다. 아주대의 첫인상은 어땠나.

아주 밝다는 인상이다. 학교가 자연환경과 접하기 좋고 교수님들도 현대 해주셨다. 제가 대법원의 어려운 판결들을 같이 읽는 수업을 진행하는데,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의 반응도 굉장히 좋았다. 학생들에게도 많이 고맙다.

최근 신간 《판결과 정의》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개천에서 용이 나지 못하는 사회는 발전하기 어려운 사회'라는 발언을 해서 주목을 받으셨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다. 열심히 노력하면 목표한 곳에 다다를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사회여야 변화가 있고 발전하는 사회다. 우리 사회가 조선 시대, 일제 강점기, 권위주의 정권을 거쳐오는 동안 계급들이 많이 희석됐고 경제 발전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노력하면 극복이 가능한 부분이 있었고, 다른 어떤 나라보다 역동적일 수 있었다. 노력하면 내가 타고난 여러 가지 계급, 계층을 극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게 어려운 사회로 진입하면서 사회가 활력을 잃고 계층이 고착되는 것 같다.

유리천장에 가로막혀 스스로 한계를 정해버리려 하는 젊은이가 있다고 했을 때, 개인적으로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

젊은이에게 '이렇게 사는 게 올바른 삶이야', '이렇게 살아라는 식으로 말하기를 싫어한다. 그 젊은이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내 경험적인 얘기를 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나. 하지만 '인생에 의미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이가 있으면 '너의 삶은 지금 없다고 생각해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찰해볼 수는 있지 않냐'고 말한다. '나 없이도 잘 돌아가고 있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다. 다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차분히 들여다볼 수도 있지 않냐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내가 더 끼어들 여지가 생긴다. 항상 세상의 중심에 쫓기는 없을지라도, 내가 약간 발을 들여놓을 구멍이 생길 수도 있다고 본다.

이상적인 대학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나라에서 '교육'이란 것은 오히려 좌절하는 과정이며 현실 감각을 익히는 과정이다. 남과 비교해서 남보다 어떤 것이 낫고, 하는 식으로 평가를 받지 않는가. 이상적인 교육은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고 공동체에서 제 역할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본다. 대학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사유할 방법을 가르쳐주는 곳이어야 한다. 그 '방법'이라는 것은 내가 너무 잘나서, 나만 소중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공동체 내에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것이 돼야 한다. 너무나 이상적인 이야기다.

“

남의 인간 존엄성을 짓밟은 뒤에 모든 사람이
누리는 행복이 과연 행복인가? 정의라는 게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다.
결국, 인간 존엄성의 문제다.

”

신간의 제목이 《판결과 정의》다. ‘정의’와 ‘공정’에 관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는데, 이러한 가치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가장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다만 가장 많은 사람이 누리지만 이를 위해 기본권을 박탈당한 일부 개
인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이라는 소
설이 있다. 미국의 어떤 철학자가 내세운 가설을 토대로 하였다. 거의 모
든 사람이 삶의 행복을 누리는 좋은 사회인데 딱 한 명 지하실에 갇혀 있
는 희생자가 있다. 그 희생자를 자유롭게 놔주면 사회가 무너지게 된다.
많은 사람이 그 희생자의 인간 존엄성을 믿고 자신들의 행복을 찾지만 어
떤 사람들은 그 사회를 떠난다는 것이다. 남의 인간 존엄성을 짓밟은 뒤에
모든 사람이 누리는 행복이 과연 행복인가? 정의라는 게 너무 어렵고 복
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다. 결국, 인간 존엄성의 문제다. 이 민주주의 사회
는 다수결이 어떤 의견을 정하는 사회이지 않다. 그런데 다수자가 그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 소수자의 기본적인 존엄 자체를 파괴하는 결정을 다수
의견으로 내린다고 하자. 이러한 삶도 정의인가? 그럴 때도 다수의 정의
가 정의인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의 정의가 반드시 ‘정의’는 아니라는 말씀이시
다. 소수자들의 인권에 대해 본격적으로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나?

민주주의는 다수결을 통해 대통령도 뽑고 국회의원도 뽑는다. 소수자들
의 삶도 다수자들이 정하는 것이다. 다수에게는 조그마한 혜택이지만 박
탈당하는 소수자의 권리문제는 근본적일 때 문제가 된다. 선거로 선출되
는 ‘권력자’는 선출을 계속 받고 싶을 것이다. 이를테면 국회의원이 다음번
선거에서 지면 안 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동성동본불혼제도라든지 호주
제도에 대해서는 절대 법을 못 만들었다. 그럴 때 법관들이나 헌법재판관
들이 법을 만들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 선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니
까 말이다. 법관들은 기본적으로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서 박탈당하는
기본권과 다수결이 그로 인해 누리는 기본권을 비교해 어느 쪽이 더 크고

무거운지를 정해야 하는 직업이다. 그렇다 보니 직업적으로 소수자의 기
본권을 생각해야만 했다. 또 나는 여성 법관이 열 명이 안 되던 시절의 여
성 법관이었다. 그런 시절에 판사를 하고 전문직 여성으로서 아이를 키우
다 보니 사회에서 내가 소수자의 위치에 있다고 느꼈고, 이러한 개인적인
경험 때문인 것도 있다.

우리 사회 전문직 여성의 삶을 언급해 주셨다. 《판결과 정의》 첫 장에
서도 여성 인권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요즘 페미니즘은 인터넷이나
젊은이들 사이에서 굉장히 ‘핫’한 이슈다.

남성 대 여성의, ‘싸움’의 문제로 몰고 가는 것은 잘못됐다. 계층사회나 힘
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문제이지 남성과 여성의 문제가 아니다. 전통적
으로 남성의 것으로 여겨졌던 일자리를 여성들이 많이 가져가다 보니, 또
예전에 남성들이 누리던 권력에 대해 여성들이 내놓으라고 외치다 보니 남
성과 여성의 갈등처럼 보이는 것이다. 나는 이 현상이 힘의 배분, 권력의
문제라고 본다. 학교에서도 따돌림을 당하던 학생이 전학 가면 또 그다음
학생이 타깃이 되지 않나. 따돌림이 사라지지는 않는 것이다. 남녀 간 갈
등 문제로 보이겠지만, 만약 그래서 여성이 예전처럼 집에서 가사노동을
하며 조용히 살면서 바깥에서의 모든 권력이 남성들의 전유물이 된다면?
남자 중의 가장 약한 집단이 공격을 받을 것이다.

앞에서 ‘정의’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 법원의 판결을 두고 정의라고
느끼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많은 것 같다.

법이라는 게 어떤 사회를 선도하는 게 아니고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뒤
늦게 들어와서 해석하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일반인이 느끼는 것보다 동
작이나 판단이 느릴 수 있다. 판사들이 축적된 관례나 사례에 발목이 잡
혀서 변하는 사회를 미처 따라잡지 못할 수도 있다. 보통 사람들은 항상
법원에다 요구해야 하고, 법원도 그런 요구를 귀담아들어야 한다고 생각
한다.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한 언급을 빼놓을 수 없다. 한편에서는 이 법이 ‘사
문화되고 있다’, ‘자영업자들에게 타격을 주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우리나라는 왕조 시대를 끝내고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엘리트들이 권력
을 독점하는 시대로 오게 됐다. 그래서 ‘엘리트 카르텔’ 시대가 되었고 이
제 여기에서 어떻게 벗어나느냐가 문제인 시대다. 만약 독재 정권 시대에
청탁 금지법 같은 걸 만들었으면 정말로 맘에 안 드는 사람을 ‘잡아넣을
수 있는’ 법으로 기능했을 수도 있다. 그런 나라에서는 청탁 금지법이 참
위험할 수 있다. 그러나 엘리트 카르텔 시대에서는, 엘리트끼리 카르텔을
맺어서 서로 봐주고 도와주고 인맥을 형성하지 않나. 사적으로 네트워크
를 이용하기 위해 밥 먹고, 술 먹고, 서로 친목 도모하는 것은 좀 막아야
하겠다는 소소한 목적이 있다.

‘사문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있어서 저는 우리 국민이 청탁 문화나 금품
수수 문화에 대한 반감이 크기 때문에 사문화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부분적으로는 있다 할지라도, 변화해 가는 건 틀림
없다. 일부 축산농가나 자영업자들에게 타격이 된다는 건 사실이다.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더 준비 과정을 거쳐서 타격을 줄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도 있다. A

김영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전 대법관)은
1956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
하고 1981년부터 판사로 일했다. 2004년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
대법관이 됐으며, ‘소수자의 대법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2011
년부터 2012년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부정청
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입법에 힘썼다. 올해 4월
부터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으로, 9월부터 아주대 법학전문대
학원 석좌교수로 일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판결을 다시 생각한
다》, 《김영란의 책 읽기의 쓸모》, 《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 《문
학과 법》(공저), 《김영란법, 김영란에게 묻다》(공저), 《이제는 누군
가 해야 할 이야기》(공저) 등이 있다. 청조근정훈장, 한국여성지도
자상 등을 수상했다.



“
서브 목표와 플랜B를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무언가 준비를 하다보면 실패가
따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저는 뭔가를 준비할 때 이것이 실행이 안 되면
다른 어떤 것을 해야겠다는 ‘서브 목표’를
가졌습니다.
”

신유리
판사
법학과 02학번·로스쿨 2기

“평범히 학교생활을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올해 10월 판사로 임용된 신유리 동문(법학 02)은 말한다. 얼핏 “교과서 위주로만 충실히 공부했다”라던 수많은 ‘모범생’들의 발언처럼 들린다. 그러나 신 동문은 알고 있었다. 자신의 인생이 교과서처럼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생의 수많은 ‘플랜B’들을 준비해놓고 기회를 붙잡았다는 신 동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글 박예슬 / 사진 김성재

인생에선 ‘플랜B’도 중요합니다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주대 법학과 02학번으로 입학했습니다. 다른 부전공 없이 중간에 휴학 기간 합쳐서 5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2010년 아주대 로스쿨에 입학했으며 로스쿨 과정에서 2013년 재판연구원으로 선발됐습니다. 2년의 재판연구원 기간을 마치고 국선전담변호사로 4년 반 정도 활동했습니다. 그 후 법관 임용 준비를 해서 올해 10월 판사 임용을 받게 됐어요. 현재는 연수 중이고 2020년 2월 배치될 법원이 결정됩니다.

자신의 학창시절을 돌이켜 본다면, 어떤 학생이었나요?

평범한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법학과는 다른 과보다 필수 이수학점이 높아서 다른 교양 수업을 많이 듣지 못했는데, 그때 법학 공부를 충실히 하면서 1학년 때 비해 3,4학년 때 법학 공부에 익숙해지며 학점도 높아지며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고, 그게 로스쿨 갈 때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대체로 학교 커리큘럼을 충실히 따라가는데 힘썼고, 외부 활동을 많이 하지는 않았습다. 학부 시절이 그리운 이유는 굴곡도 없이 무난했고, 힘든 점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법학은 제가 노력한 만큼 성적이 나오는 학문이라서 좋았습니다. 동아리 활동은 따로 안 하고, 법학과 내 민사법학회, 형사법학회 등이 나눠져 있어서 그 안에서 형법소학회 활동을 하며 생활했습니다.

법조인의 길을 걷겠다고 생각한 계기가 있나요?

고등학교는 이과를 나왔는데, 이과적인 측면과 법학이 유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사건에 요건사실이나 구성요건을 대입하면 결과가 도출되는 수학적인 면도 있어서 적성에 맞았습니다. 대학에 다닐 때는 한 번도 사법고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법학 공부는 재미있었지만, 사법고시라는 게 준비해서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고 학원도 다녀야 하고,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졸업 후에는 바로 한 게임회사 법무팀에 취업했습니다. 1년을 다니고 공부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지요. 또 당시 로스쿨 도입이 임박했던 때였거든요. 회사에서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나중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들어오면 승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했고, 로스쿨 진학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법조인이 되기 위한 과정에서 힘든 점은 없었나요?

로스쿨에는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이 옵니다. 제가 그곳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압박감과 걱정이 있었어요. 로스쿨 과정에서는 남들이 한 시간 하는 공부를 저는 두 시간 해야 한다고, 남들보다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여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법학은 정직한 학문이라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왔고, 좋은 성적으로 로스쿨을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

제가 실패할 것이라는 가능성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 지점에서 낙담하고 쓰러지느냐, 아니면 '다음 목표'를 찾아서
노력을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

묵묵하고 성실하게 공부하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꾸준히 성실하게 할 수 있었던 자신만의 비결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공부를 하는 만큼 성과가 눈에 보여서 그것이 동기부여가 됐다고 생각합
니다. 천재적인 사람 역시 있겠지만, 법학은 누가 더 꼼꼼하게 오래 공부
를 하고 이해하느냐. 시간을 얼마나 투입하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성과가
나오는 학문입니다.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올 것이라는 믿음과 노력이 있
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이 나오니까 또 열심히 하게 되고, 그렇게 선순환
이 됐습니다.

'자신과의 약속'이 가장 지키기 어렵죠. 이와 관련해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 주신다면?

답이 없지만, '책임감'이 가장 컸습니다. 제가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모
든 가족의 희생이 있을 수밖에 없고, 여기서 성과를 얻어야지만 내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지요. 입사해서도 마찬가지로
로 자신이 해당 업무를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결국 다른 분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책임감과 나타내지지 않으려는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로스쿨 생활을 하면서 도움이 되었던 아주대에서의 경험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법학만 아니라 부가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다양한 학문의 수업을 들으
면서 공부를 했던 경험이 법학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법학
은 고립된 학문이 아니니까요. 법학과 자체가, 한 학과에 60명 정원 밖에
안 되는 과였기 때문에 교수님과 선후배, 동기들과 관계가 아주 끈끈하
고 친밀했어요. 저희끼리 많이 뭉쳤죠. 그런 경험들이 많은 도움이 됐습
니다.

법학이 고립된 학문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아주대의 슬로건인
'커넥팅 마인즈(Connecting Minds)'라고도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것이, 다양한 학문의 전공자들이 대학원에 입학해
서 법학을 배움으로써 자신의 전공과 법학을 접목시켜서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법학만 공부한 사람은 다양한 사건에 대응
하기 힘들습니다. 그 사건은 건축 사건일 수도 있고, 행정 사건일 수도 있
고 의료 소송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법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저는 로
스쿨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입학하긴 했지만, 행정학과 과목도 공부해보
고, 도움이 될 만한 주변 분야를 공부하면서 법학에 이해를 높이는 데, 법
학이 생활과 접목된 부분의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비교적 빠르게 진로를 결정하신 편입니다. 방향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학생들에게 조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계획을 철저히 짜되, '서브 목표'와 '플랜B'를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
다. 무언가 준비를 하다보면 실패가 따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
니다. 저는 원가를 준비할 때 이것이 실행이 안 되면 다른 어떤 것을 해야
겠다는 '서브 목표'를 가졌습니다. 로스쿨 입학 준비할 때도 물론 최선
을 다해서 준비하지만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도 대비하고 계획적으로 준
비했습니다. 저는 다행스럽게 실패하지 않고 목표한 바를 다 이뤘습니
다. 하지만 제가 실패할 것이라는 가능성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 지점에
서 낙담하고 쓰러지느냐, 아니면 '다음 목표'를 찾아서 노력을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플랜B'를 준비하는 것이죠. 저는 계획 짜는 것을 좋아해서,
시험공부를 할 때도 날짜 별, 시간 별로 어떤 과목을 공부할 것인지 계획
해놓고 공부를 했거든요. 하다보면 계획대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계획
에서 '실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지요.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A**



“
아주대 재학 시절은 세계 사회를 보는 눈을
갖게 한 시간이죠. 격변하던 사회 분위기
속에서 밤새도록 선후배와 토론을 하고
열정적으로 활동을 했어요.
그 경험이 다큐PD로서 사회를 넓게 보고
사람을 깊이 있게 보게 된 바탕이자,
자양분이 됐죠.
”



장강복

다큐멘터리 PD
생물공학과 85학번

세상의 이면을 고집어내 말하는 이들 덕에 우리는 잊었거나 외면해온 불편한 진실을 마주한다. 있는 그대로 눈앞에 보여주는 말하기 방식이 그중 가장 강렬하다. 현실을 보여주되 일정한 관점을 유지하며 보는 이로 하여금 생각과 행동을 불러오는 것이 바로 다큐멘터리의 힘. 이런 다큐멘터리를 향한 외길을 27년간 걸어온 이가 있다. 다큐멘터리 PD 장강복이다.

글 권라희 / 사진 김성재

**내게 세상과 사람,
진리를 가르쳐준
다큐멘터리의 세계**

다큐멘터리로 세상에 말걸다

제작사 사무실을 찾았을 때 장강복 PD는 엇그제 남아프리카에서 촬영을 마치고 돌아와 아직 시차 적응 중이라고 했다. 이번에는 어떤 다큐멘터리를 준비 중인지 물었다. 하나는 지구 환경에 대한 이야기이고 또 다른 하나는 문화의 힘에 관한 이야기라고 소개했다.

“수천 년을 살아서 남아프리카에서는 ‘생명의 나무’라고 부르는 바오밥 나무가 지구온난화 때문에 잇따라 죽고 있어요. ‘기후를 위한 학교 파업(School Strike For Climate)’을 이끄는 스웨덴 청소년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죠. 이에 영향을 받은 독일·프랑스·미국·호주·뉴질랜드·아시아의 청소년들을 만나고 돌아 왔어요.”

또 다른 하나는 1969년 멕시코에 태권도를 전파한 문대원 관장을 중심으로 그들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만큼 그곳의 온전한 문화로 자리 잡은 멕시코 태권도 50년사를 짚었다. 그는 이렇게 전 세계를 돌며 촬영한 다큐멘터리를 1월 경 방영할 예정으로 편집 중이다. 다큐멘터리 한 편을 만들기 위해 일 년의 반절은 해외에 머문다고 한다.

“다큐PD는 이야기꾼이에요. PD가 바라보는 시선이 중요하죠. 어떤 시선으로 무엇을 전달할 것이냐를 정하고, 거기 집중해서 관련된 것만 기록을 해요. 어떤 관점으로 대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이야기가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같은 대상이라도 해도.”

장강복 PD가 제작한 다큐멘터리는 늘 화제의 중심에 선다. KBS스페셜 <플라스틱 지구>는 전 세계 생수를 무작위로 수집해 검사하고 모든 샘플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된 결과를 낱알이 보여줘 충격을 안겼다. 우리가 무심히 쓰고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를 떠다니며 결국은 우리 뱃속에 들어올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결과를 눈앞에서 마주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에 멈추지 않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윤리적 소비와 생태적 일상도 제시해 내일을 바라볼 수 있게 했다. 이 다큐멘터리는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무수한 경쟁작을 제치고 ‘2019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을 수상했다. 그 외에도 화려한 수상 이력을 자랑하는 그에게 무엇이 좋은 다큐멘터리인 것인지 물으니 현명한 답변이 돌아온다.

“자신이 세상에 전하려는 이야기가 무엇이고, 그게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느냐, 그 이야기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가 중요하죠. 소재나 대상에는 제한이 없어요. 길가의 한낱 돌일지라도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 의미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면 그건 좋은 다큐멘터리죠.”

보편타당한 가치를 담은 다큐멘터리의 세계

다큐멘터리 PD 장강복이 지난 27년간 제작한 작품은 헤아리기 어렵다. 직접 현장에 뛰어든 작품 외에도 선후배들의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에도 열정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다. 고생 끝에 만들어낸 작품 중 몇 가지만 꼽아달라고 하니 난감해하면서도 그는 <인간극장>을 첫 손에 꼽았다.

<인간극장>은 KBS-1TV에서 2000년에 첫 방송을 한 이래 무려 19년째 방영 중이다. 휴먼 다큐멘터리를 연속극처럼 5부작으로 만드는 사례는 한국이 유일하다. 외국에서는 사생활 공개를 허락하지 않아 휴먼 다큐멘터리를 재연으로 제작하는 것과 달리, 인간극장은 사연의 실제 인물을 밀착 취재한 방식이라는 점에서도 차이가 크다.

“<인간극장>은 휴먼 다큐멘터리 분야에서 기념비적인 작품이에요. <인간극장>이 이렇게 오래 갈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어요. 그만큼 다큐PD들이 진정성 있게 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 진정성이 화면을 뚫고 나와요. 출연자들의 눈빛이나 행동에서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그걸 시청자들이 먼저 알아봤고 그래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사실 많은 이들이 궁금해 하는 게 있다.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게 다큐멘터리지만 과연 그럴까, 그것이 다일까 하는 것. 이에 대해서도 그는 거침 없이 진솔하게 답했다.

“

제가 그들을 통해 세상을 배워요. 휴먼다큐의 주인공을 만나서 깊이 있게 취재를 하다보면 그 분들이 제게 보편타당한 가치를 깨닫게 해주지요. 인생의 진리를요. 그렇게 배운 가치를 저도 생활인의 한 사람으로서 삶을 통해 실천해야겠다고 생각해요.

”

“카메라를 대는 순간 왜곡이 시작돼요. 실제 출연자가 가진 것들이 그대로 투영되지만, PD의 시선으로 대상을 바라보고 그에 따라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이죠. PD마다 그 대상에게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에 집중하죠.”

또 다른 작품으로 그는 기업 관련 다큐멘터리로 <글로벌 성공시대> (2011~2013) <히든 챔피언> (2013)을 꼽았다. 해외에서 갖은 역경을 이겨내고 세계 시장을 개척해 진정한 리더로 우뚝 선 이들을 만난 다큐멘터리로, 참된 기업을 정신을 담은 작품이다.

“땀으로 이룬 가치는 매우 소중하거든요. 보편타당한 가치죠. 사람들이 흔히 쉽게 돈 벌고 싶어하는데 그렇게 번 것은 또 쉽게 나가요. 이런 다큐를 보면 제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는지 보여요.”

다큐멘터리를 하는 단 한 가지 이유

“사실 다큐PD는 육체적·정신적으로 힘든 일이에요. 저도 작품을 만들 때마다 한계를 느껴요. 다큐하겠다는 후배들이 우르루 들어왔다가 열에 아홉은 나가고 하나만 남아요. 그만 둘 때는 이유가 100가지지만 지금까지 다큐하는 후배는 이유가 하나뿐이에요. 이 일만큼 보람과 희열을 주는 일이 없으니까.”

공익성을 앞세운 다큐멘터리는 많은 이들에게 박수를 받는 반면, 방송구조상 상업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 제작 PD, 특히 외주제작사 대표로서는 고심이 클 터. 사실 방송대상을 수상한 <플라스틱 지구> 이후에도 제작 여건이나 편성 조건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저 자신이 앞서 이야기한 땀의 가치를 소중히 하듯 한 편마다 대상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정성을 쏟아 인정을 받는 것일 뿐.

“다큐멘터리PD이기에 항상 새로운 환경을 접하고 경험할 수 있어요. 아프리카 피그미족부터 마야인, 잉카인까지, 노숙자부터 예술가, 대기업 회장님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죠. 그들을 통해 인생을 들여다봐요. 그 사람들에게 대한 얘기를 찍으려면 같이 사는 거예요.”

그는 여전히 다큐멘터리 PD로서의 본질을 놓지 않았다. 저마다 어렵지만 곳곳하게 다큐멘터리를 만들며 함께 걷는 사람들을 그는 동지라고 불렀다. 친구나 형제보다도 소중하고 자신에게는 그런 후배들이 있어 행운이라며 흐뭇하게 웃었다.

어제의 시간, 다큐멘터리로 향한 길

“아주대 재학 시절은 제게 사회를 보는 눈을 갖게 한 시간이에요. 격변하던 사회 분위기 속에서 밤새도록 선배와 토론을 하고 열정적으로 활동을 했어요. 그 경험이 다큐PD로서 사회를 넓게 보고 사람을 깊이 있게 보게 된 바탕이자, 자양분이 됐죠.”

그는 사회에 나가서 진정한 꿈을 찾는 경우다. 그는 아주대학교 85학번으로 생물공학을 전공했지만 그때는 자신이 꿈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졸업 때쯤 언론계로 가려고 방향을 정했다가 교육자였던 아버지의 영향 때문인지 EBS교육방송에 들어갔다. 교육방송에 들어가 영상 공부를 하다 보니 이게 자신의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특히 다큐멘터리가 자신의 시야를 확 넓혔기에 본격적으로 그 길로 뛰어 들었다고 한다. 아직 갈 길을 찾고 있는 아주대학교 후배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물었다. 그는 아직도 인생을 모르겠다며 손사래 치면서도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설령 가보니 잘못된 길이 있대도 후회는 남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제 길을 찾을 수 있을 거라며 진심어린 조언을 남겼다.

장강복 PD는 앞으로 다큐영화를 제작해 한 사람의 사랑이나 도전, 눈물 짙은 가슴 정한 사연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공유해주고 싶다는 꿈을 밝혔다.

“제가 그들을 통해 세상을 배워요. 휴먼다큐의 주인공을 만나서 깊이 있게 취재를 하다보면 그분들이 제게 보편타당한 가치를 깨닫게 해주지요. 인생의 진리를요. 그렇게 배운 가치를 저도 생활인의 한 사람으로서 삶을 통해 실천해야겠다고 생각해요.”



장강복PD는

다큐멘터리 PD, (주)제이케이미디어 대표, KBS스페셜 <플라스틱 지구>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2019) 대상을 수상했다. 1992년 EBS에 입사한 이래 동아TV, 프리랜서를 거쳐 제3비전을 계기로 1994년부터 다큐멘터리 제작에 뛰어 들었다. 2019년 현재 27년간 KBS 1TV 휴먼다큐 <인간극장>, KBS 1TV <글로벌 성공시대>, KBS 1TV <KBS스페셜> 등 다수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왔다. 아주대학교 생물공학과(85학번)를 졸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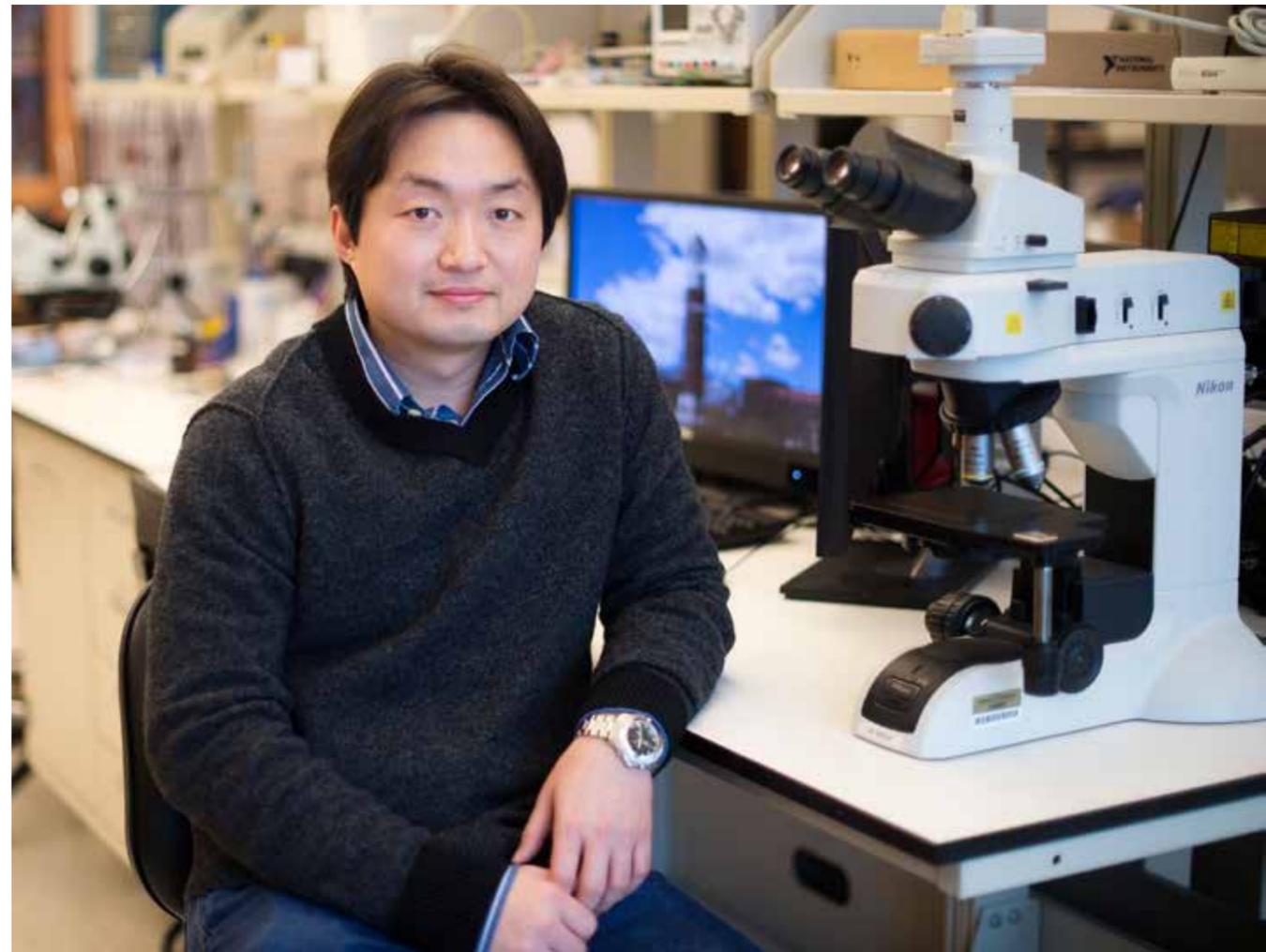
내면의 변화를 이끌어준 곳, 아주대

이지환

피듀대학교 공학대학 조교수
산업공학과 99학번

미국 피듀대학교 소속 조교수인 이지환 동문(산공 99)은 고등학생 시절 남들과 같은 평범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그렸다. 그랬던 그가 아주대에서 변화를 맞았다. 이 동문은 대학 졸업 후 미국으로 떠나 다양한 사람들과 협업을 통해 괄목할 만한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글 박예슬



이지환 동문은 미국 인디애나주에 위치한 공립대학 피듀대학교(Purdue University) 공과대학에서 조교수로 있다. 의생명공학과, 기계공학과, 재료공학과, 언어청각학과(Speech, Language, & Hearing Science)라는 4개 학과 소속이다. 이 동문은 '웨어러블 바이오메디컬 디바이스(Wearable bio medical device)'를 만들고 있는데, 이는 사람의 신체에 마치 '스티커'처럼 붙어 생체 신호를 검출하고 수집한 뒤 이를 무선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바이오센서다. 이 같은 연구 내용으로 최근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의 젊은 과학기술자상 수상자에 선정되기도 했다.

“궁극적으로는 환자들이 병원을 매번 가지 않아도 되게끔 하는 게 목표입니다. 특히 재활 치료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자주 방문해야 합니다. 미국은 의료 비용도 비쌀뿐더러 시골은 병원이 가깝지 않습니다. 미국의 90% 이상이 시골로 규정돼요. 마트나 병원에 가려면 몇 시간씩 걸리는 곳에 사는 분들이 재활 치료를 받을 때, 병원에 매번 가려면 어려움이 큼니다. 그래서 저는 '재택 원격 재활 치료(in-home tele rehabilitation)'라는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재활 치료를 받거나 간단한 진단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에 계신 장애인든 당뇨든 고생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국에 자주 가지 못하는 상황인데, 병원에 자주 왕래하시는 게 안스럽더라고요. 이런 환자분들이 병원에 자주 가지 않고 집에서 진단받을 수 있는 값싼 '스티커형' 의료기기를 연구해볼까하고 시작하게 되었죠. 제 연구가 소외계층이 의료혜택을 보다 수월하게 받을 수 있게 하고 싶은 바람도 담겨 있습니다.”

이는 융합적 요소가 아주 큰 연구다. 그가 의생명공학과, 기계공학과, 재료공학과 등의 학과에 모두 소속된 이유이기도 하다. 이를테면 재료공에서 유연한 소재를 합성하고 제작하면 기계과에서는 이러한 소재를 값싸게 대량으로 생산할 방법을 연구하고 의공학과와 언어청각학과에서 임상실험을 해서 치료효과를 검증을 해야한다. 그래서 협업이 중요하다.

“협업하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이 제일 힘들죠. 전공 분야가 다 다르니까요. 특히 의사들과 연구자들은 사용하는 언어나 문화가 모두 다릅니다. 먼저 상대방의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피듀에 온 지 처음 2년 정도는 실적을 신경 쓰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했어요. 새로운 곳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나 서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파악하고, 문제를 정의하고, 조금씩 프로젝트에 착수해서 같이 일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차근차근히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합니다.”

마지막 타지에 와서 적응하고 연구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었다. 말이 안 통하는, 완전히 문화가 다른 나라에 와서 생활하는 일 자체부터 힘든 것이다. 이 동문에게 힘이 돼 준 건 아주대 시절의 경험들이었다. 지금의 이

동문을 보면 상상하기 힘들지만, 대학에 입학하기 전 그는 큰 욕심 없이 안정적인 것을 원했다. 대학에 졸업하고 취업해서 '남들처럼' 사는 것이 고등학생 시절의 이 동문이 그렸던 미래였다. 그의 내면의 변화를 이끈 것은 아주대에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이었다.

“입학 후 다양한 사람들, 자립심 강한 선배들을 만나면서 내면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특히 테니스 동아리 ATC 소속이었는데, 동아리 회장을 하기 위해 휴학까지 했습니다. 덕분에 리더십을 키울 수 있었지요. 고등학생 때까지는 공부만 했지, 그런 능력을 키울 기회가 없었거든요. 정말 중요한 자질인데, 이제까지 왜 나에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싶기도 했고요. 동아리 회장을 하면서 사람도 많이 만나고 성격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원가를 이끈다는 걸 처음 배웠지요. 대학 시절부터 좌우명도 생겼습니다. '살까 말까를 고민하면 안 사고, 할까 말까를 고민하면 하지입니다.’”

이 동문에게도 두려움은 물론 있었다. '글로벌 무대 진출' 같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도, 잘 모르는 분야에 새로 도전하려고 하면 두려움이 매우 클 것이다. 우선 일어나지도 않은 걱정을 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핑계가 생긴다. 돈, 언어, 향수병... 이 동문은 이 문제들을,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직접 경험해보야 알게 되지요. 누군가 제게 조언을 구해도 그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도전해 보라'는 말밖에는 해줄 수 없습니다. 위촉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신감을 가지고 원가를 해보세요.”

복수학위제는 아주대에서 2년간 일정 학점을 수료하고, 해외 자매대학에서 2년간 남은 학점을 이수하면 두 대학의 학위를 모두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아주대는 미국 뉴욕주 스톤브룩대학(SUNY-Stony Brook University),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위치한 일리노이공과대학(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과 복수학위 협정을 맺었다. 복수학위제를 통해 두 대학의 학위를 모두 취득한 졸업생들은 졸업 이후 학업을 이어가거나 글로벌 무대에 진출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이지환 동문은

아주대학교 산업공학과 기계공학을 복수전공하고 복수학위 프로그램에 참여, 2005년 미국 일리노이공과대학으로 떠났다. 이후 스탠퍼드대학 기계공학과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고 일리노이주립대학 재료공학과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일했다. 현재 피듀대학교 공과대학에서 조교수로 있다. 최근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의 젊은 과학기술자상에 선정됐다.

아주강좌 400회, 총장이 떴다!

2019년 10월10일, 아주강좌가 400회를 맞았다. 이날 강연은 말은 이는 다름 아닌 박형주 총장이었다. 아주강좌가 뜻깊은 400회를 맞이하기까지 어떤 이들이 아주대를 방문했을까. 또 이날 박형주 총장은 어떤 메시지를 학생들에게 전하고자 했을까. 함께 살펴보자.



아주강좌, 400회를 맞이까지

지난 2002년 로버트 러플린 전 카이스트 총장의 강좌로부터 출발한 아주강좌는 수많은 각 분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통해 아주인들의 폭넓은 인문, 사회, 자연과학 및 예술적 교양의 습득을 도왔다. 올해도 신웅재 포토저널리스트의 강연을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아주대를 찾았다. 아래 표를 통해 그 면면을 알아볼 수 있다.

'협력하는 지성'이 세상을 바꾼다

이날 400회째를 맞은 박형주 총장의 강연 주제는 '협력하는 지성'이었다. 박형주 총장은 르네상스 시대의 수학자 루카 파치올리와 당대의 천재 예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페르마와 파스칼, 스키니바사 라마누잔과 하디의 만남을 소개한다. 모두 당대 '혁신'을 불러일으킨 만남이다. 박형주 총장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 있게 되면서 격렬한 상호반응을 일으킨 경우로 이들의 사례를 든 것이다. 이들 사례는 동질적인 것이 아닌, 이질적인 것들의 만남이 서로의 세계를 바꾼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박형주 총장은 "고등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예전에는 대학에서 '맞춤 교육'을 많이 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제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며 "학생이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떻게 아나? '맞춤 교육'을 시켰다가 학생이 다른 일을 하고 싶어 하면 어쩔 텐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듣는 것만은 안 되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서 백 번 보는 것보다 한 번 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주대에서 실시하고 있는 '파란학기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볼 것을 권장하기도 했다.

박형주 총장은 강좌를 마치며 배우는 법을 배우는 교육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식의 출현이 너무 많아져서 이제 '지식의 시대'가 아닐지도 모른다. 방대한 정보로부터 유의미한 것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의 발언을 인용해 "오늘날의 문맹자는 읽고 쓰기를 못하는 사람이며, 21세기의 문맹자는 필요할 때 배우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전했다. '가르침(teaching)'의 시대에서 '배움(learning)'의 시대로 갈 것을 거듭 강조하며 박형주 총장은 강좌를 마무리 지었다. A

2019년 아주강좌

강연자	강연 주제
386회 신웅재(포토저널리스트)	PHOTO-JOURNAL-ISM: 무정한 빛을 담은 총동에 대하여
387회 이국종(아주대 의학과 교수)	학과와 업무
388회 석한남(고문헌 연구자)	다산과 추사, 유배를 즐기다.
389회 강원국(작가, 전 대통령 비서관)	말과 글로 행복한 삶
390회 서정민갑(대중음악 의견가)	세상을 바꾼 음악, 음악을 바꾼 세상
391회 이정모(서울시립과학관장)	저도 과학은 어렵습니다만
392회 김상욱(경희대 물리학과 교수)	델리과 울림 - 물리학의 눈으로 본 우주, 세상, 인간
393회 신대철(작곡가, 기획가, 아티스트)	음악산업의 현재와 미래
394회 김태경(어메이징 브루잉 컴퍼니 대표)	크래프트 맥주와 어메이징 창업 스토리
395회 김동현(서울 독립영화제 집행위원장)	독립영화는 무엇으로 사는가?
396회 신재행(수소융합얼라이언스 단장)	원소주기율표상의 수소가 어떻게 경제가 되는가?
397회 남기업(토지+자유 연구소 소장)	건물주의 나라에서 우리 모두의 나라로
398회 정대진(아주통일연구소 교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가?
399회 최민(직업환경의학전문)	일과 건강 _ 당신이 아픈 것은 일 때문입니다.



강소기업으로 가자!

엄마와 아이의 꿈을 함께 키워나가는 (주)비스토스

2001년에 설립된 비스토스(Bistos)는 생체신호 진단 분야의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료기기 제조회사다. 태아와 신생아 분야의 부족한 의료환경을 개선하여 태아의 사망률을 줄이고 건강한 아이로 키울 수 있도록 설립 초기부터 이 분야에 사업 역량을 집중해 왔다. 국내는 물론 전 세계 모자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는 비스토스 이후정 대표이사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글 변재우 커뮤니케이션팀 / 사진 이후정 대표이사 제공



이후정

(주)비스토스 대표이사
전자공학과 82학번



주력 제품군을 소개해 주세요. 또, 해당 분야에 관심을 집중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비스토스의 주력제품은 초기 태아심음측정기, 태아감시장치로 시작해서 인큐베이터, 가온기, 황달치료기 등으로 확대되었고, 현재는 환자감시장치 등이 추가되어 주력 제품군을 이루고 있습니다. 태아 관련 의료장비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건 제 개인적인 경력 때문입니다.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한 첫 직장이 초음파스캐너를 제조하는 메디슨(현 삼성메디슨)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초음파를 이용한 신호처리 연구에 주력하였고, 또 태아의 건강측정은 초음파를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당시 초음파스캐너를 제외한 이쪽 분야는 국내기술이 거의 전무했습니다. '국내 최초'라는 동기부여도 있었고 자연스럽게 태아 관련 의료기기 사업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분야 시장 경쟁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시아시피 국내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산부인과 병원도 줄고 국내시장만 본다면 어려운 환경입니다. 다만, 저희는 내수보다는 수출에 주력하고 있고 CE, FDA 등 국제규격을 획득하여 선진국은 물론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남미 등 전 세계로 시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는 중국산 제품들이 품질도 나름 우수한데 가격은 파격적으로 저렴하여 경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기술과 아이디어로 이겨내야 하겠죠.

의료복지에 관한 관심이 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간단히 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 키트 등 가정용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준비가 별도로 이뤄지고 있나요?

근래에 웨어러블 헬스케어(wearable healthcar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핸드폰에도 몇몇 앱을 실행하면 기본적인 건강진단이 가능합니다. 아마도 미래는 더 확대되리라 생각하며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강진단은 단순히 아이디어 차원을 넘어서서 상당한 시간 동안 연구개발, 임상, 허가 등이 뒤따라야 해서 쉬운 분야는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핸드폰과 연동된 개인용 의료기기들이 개인의 건강 체크를 위한 대세를 이룰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베트남 전시회에 참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도 활발히 진행 중인가요?

두바이, 독일, 한국, 중국, 브라질, 미국 및 홍콩 등 세계 전시회에 매년 직접 참가하고 있으며 베트남,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 기타지역은 현지 대리점에서 자체적으로 참가합니다. 현재 회사 매출의 90% 이상이 수출이기



때문에 해외 전시회가 판로를 개척하는 데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저도 시장개척, 거래계약, 거래처 점검 등을 위해서 한두 달에 한 번씩은 출장을 갑니다. 미국부터 말리, 스와질랜드까지 전 세계 80여 개국 이상에 수출하고 있고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본인만의 경영 철학이 있나요? 또, 회사의 장점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나름대로 그간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게 있다면, 목표를 향해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최선을 다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긍정적 사고와 열정, 노력을 매번 우리 직원들에게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시대에 생각해보면 좀 고리타분한 것 같습니다. 제가 82학번이니 지금 들어온 신입사원들과는 자식뻘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회사 생활이나 소통 면에서는 세대 차이나 장벽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들 친구처럼 선후배처럼 스스럼없는 관계가 가장 큰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목표를 말씀해 주세요.

이 분야에서 세계 일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단지 매출이나 시장 장악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술력, 제품 성능, 품질, 그리고 회사의 문화 등을 종합해서 일류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 준다면?

여러 방면에서 많은 경험을 쌓아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책도 좋고 여행이나 직접적인 체험도 좋습니다. 다만, 가능하다면 해보고 싶은 분야는 조금 깊이 있게 접근해보기를 권합니다. 수박 겉핥기식은 기억에 남지도 않고 개인의 자산도 안 됩니다. 어떤 일이든 꿈에 나타날 정도 이상은 빠져 봐야 해봤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이 훗날 상식이 되고 폭넓은 지식을 갖게 하며 자신감의 원인이 됩니다. **A**

이제 건축학과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 현재까지 건축공간과 도시환경의 합리적인 창출을 위한 제반 이론, 실무를 폭 넓게 교육해 왔다면, 앞으로는 스마트 건축을 선도하는 문제 해결형 전문인 양성을 위한 건축 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



지난 1986년 모집정원 불과 40명으로 출발한 건축학과는 교내 다른 학과와 타대학 건축학과와 비교할 때 후발 주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후발 주자로서 가장 큰 약점은 사회에서 재학생들을 이끌어줄 선배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건축학과 졸업생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러한 약점을 '인성에 대한 신뢰'와 '실무 기반의 전문지식 교육'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 합니다.

일례로, 1997년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현대건설을 거쳐 현재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유일한 박사는 “사회에 진출해 아주대 건축학과에서 공부했다고 하면 인정받고 시작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 아주대의 교육 환경과 교수님들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매우 높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실무 기반의 전문적 지식을 교육받았다는 점 역시 크게 작용했는데 이는 아주대 건축학과가 국내 대학 중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실무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지식을 교육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스마트홈협회는 2019년의 스마트 홈 시장의 규모를 20조 원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는 스마트 빌딩, 스마트 시티, 스마트 월드로 지속적으로 확장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한 오늘의 현실이며, 머지않아 우리는 더 이상 대학의 학과 단위로 전공이 구획된 세상이 아니라, 여러 분야가 융합·복합해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고 그 가치를 인정받아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세상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건축학과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의 건축 실무 중심의 역량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스마트 건축을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문 간의 영역을 허물고, 문제 해결형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건축에 관심을 가지고 시대에 흐름에 부합하는 건축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을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자 노력하는 건축학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김경래 교수
건축학과 학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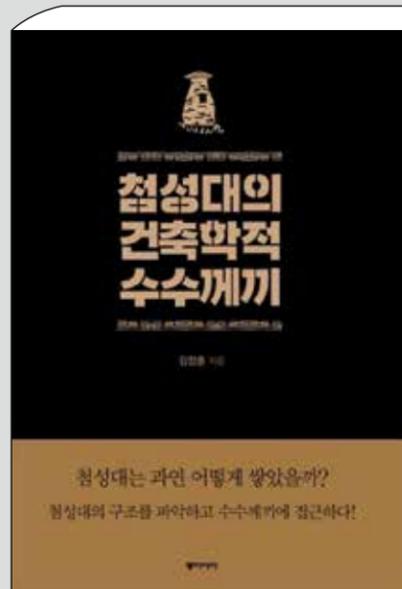


Department of Architecture



Recommended boo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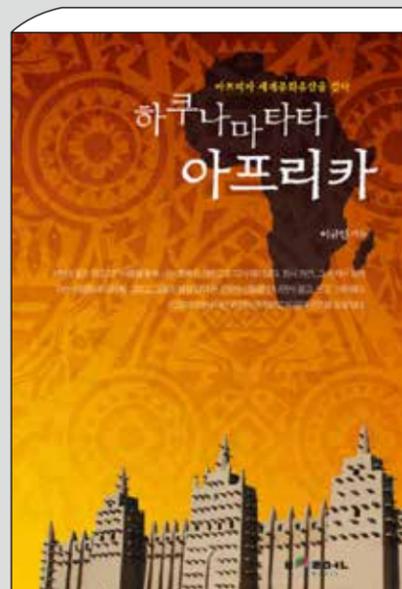
건축학과 교수들은 다양한 주제로 건축 분야의 저작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최근 아주대 건축학과 김장훈 교수와 이규인 교수가 저술한 책 두 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첨성대의 건축학적 수수께끼

김장훈 지음/동아시아/2019년 출간

첨성대에 얽힌 이야기의 다양성은 한마디로 첨성대의 쓰임새 및 기능 그리고 그 예사롭지 않은 형상에 관한 우리의 관심과 궁금증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는 첨성대에 대한 두 가지 새로운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첨성대가 1,400여 년 전에 어떤 공법으로 어떻게 건립되었는지 건축공학적으로 생각해 보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첨성대의 아름다운 입면 곡선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으며, 첨성대의 곡면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융·복합 학제적 관점에서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하쿠나마타타 아프리카

이규인 지음/발언/2017년 출간

저자는 태초의 세상을 보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문명과 도시가 형성되기 이전 지구와 인간 사회의 원래 모습이 궁금해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날아간 아프리카에서 본래의 인간과 자연을 보았고, 행복한 삶과 비람직한 사회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여행을 통해 상처투성이었던 영혼을 치유하고, 특유의 원시적 에너지로 고갈된 삶의 에너지를 새롭게 충전했다고 증언합니다. 이 책은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파괴되기 이전의 건강한 땅과 순수한 사람들, 그리고 아름다운 공동체에 대해 들려줍니다. 아울러, 인류 문명의 시원이 되는 문화유산들로부터 전율과 감동의 스토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아침든든 아주

아주대인이려면, 단돈 1,000원으로 든든한 아침!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이는 우리 학생들, 열정이 넘쳐서 보기 좋습니다. 자자, 동문들의 사랑이 담긴 아침 식사니까, 잘 챙겨먹어요.

속이 든든하니까 힘이 난다! 동아리 활동도, 공부도!

이 아침밥, 전액 동문 기부금으로 제공되는 거래.

우왕~ 좋다! 역시 아주대!

별다른 사전 신청 없이 그냥 오면 되는 거야.

학생증만 제시하면 OK! 단돈 1,000원으로 아침이 든든하다고!

기숙사 식당과 팔달관 식당, 다산관 식당에 다 있다. 코스별로 모두 가 보자!

아주대학교의 '아침든든' 프로그램은?

지난 1학기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아주대학교를 사랑하는 기부자의 후원을 바탕으로 학부생에게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아주대학교 동문의 사랑으로 지원된 아침밥을 학교에서 먹고 든든한 하루를 학생들이 설계하도록 마련했습니다. 전액 기부금으로 운영되며, 한 끼당 2,000원이 이용자의 장학 내역에 등록됩니다. 아주대 학부생은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기숙사 식당과 팔달관 식당, 다산관 식당에서 학생증을 제시하고 1,000원으로 아침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재학생이 간다

소프트웨어로 나눔의 가치 실현해요

소프트웨어학과 14학번
김영운



아주대학교가 운영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교육봉사단 'SWeat(SoftWare Education And Tutoring)'은 15개 학과 66명의 학생으로 구성된 다학제간 소프트웨어 교육봉사 동아리다. 아주대는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 스스로 소프트웨어 교육봉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SWeat을 만들고, 이를 통해 '나눔'의 가치를 알게 되었다는 김영운(소프트웨어학과 14)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SWeat을 만들고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고등학생 때 '로봇발명반'이라는 동아리 활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프로그래밍을 간단하게 접하였고 흥미가 생겨 더 공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공부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내가 프로그래밍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이 생긴다면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고 싶다는 마음을 키워왔습니다.

전역한 후 스크래치, 엔트리와 같은 교육용 오픈 소프트웨어, 아두이노 라즈베리파이와 같은 오픈 소프트웨어를 접하였습니다. 이를 활용한다면 제가 가진 지식으로도 재미있고 쉽게 소프트웨어를 가르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 학과의 가치확산 사업으로 코딩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담당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같이 활동한다면 좋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학과에서 지원해준다고 하였습니다. 후에 더 많은 학생에게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교육 봉사동아리인 SWeat을 만들고 단원을 모집해 활동하였습니다.

봉사단 활동을 하며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

모든 활동이 다 보람 있고 값진 순간들이었지만 그중에서 한 가지를 뽑으면 강원도 인구초등학교에서 진행한 여름 소프트웨어 캠프입니다. 비교적 교육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는 수원 시내 학교보다 정말 교육이 필요한 곳에 가서 지식 나눔 활동을 하고 싶어 기획하였습니다. 학교마다 직접 연락해 교육 커리큘럼과 이 교육이 필요한지 등을 조사하며 대상학교를 정했습니다. 이후 어린 학생들과 함께 3박4일간 즐겁게 캠프를 진행하였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기도 했지만, 아이들이 즐겁게 따라 하고 궁금한 걸 질문하는 모습을 보니 저 또한 즐거웠습니다. 캠프 마지막에 작은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는데 교육에 참여한 모든 학생의 열심히 토의하며 작품을 만드는 모습이 제게 가장 보람찬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얻었다!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얻은 게 가장 큼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할 때 들은 전공지식이라고는 프로그래밍 기초(C언어), 객체지향프로그래밍(자바) 밖에 없고 프로젝트도 안 해본 학생이었습니다. '이것밖에 모르는데 봉사를 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지만, 교육하기 전 미리 공부하고 준비하면 다 되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국어국문학과, 사학과, 기계공학과등 비전공자 학생들도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 옆에서 보면 전문 코딩 강사님처럼 잘 가르치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외적으로는 한 번 봉사 나갈 때마다 봉사활동 시간을 3~4시간씩 인정받아서 이게 장학금을 받는 데 도움이 많이 되기도 했습니다.

SWeat에 참가하려는 학생들에게 조언을 준다면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쉽고 재미있게 나눌 수 있을까 생각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쉬울지라도 아이들한테는 어려울 수 있거든요. 준비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교육의 질과 아이들의 집중도 또한 무척 올라갑니다. 그리고 교육을 준비하면서 자신보다 아이들의 성장을 우선시하는 봉사단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딩을 잘 몰라도 이 마음가짐 하나면 훌륭한 선생님이 될 수 있습니다. ▲



교직원 마이크

교내 착한 가격 편의점, 아주대 소비조합 매점

소비조합 상임이사
최영호



누구신지요?

태양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푸른 별인 지구를 끄밋이 사랑하는 푸백입니다. 학교 구성원들에게 착한 가격이지만 높은 품질과 맛을 지닌 제품을 판매하려고 애쓰는 소비조합에 2018년 10월에 본교로부터 파견 발령을 받고 소비조합 상임이사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무얼 하시나요?

오구르트, 우유, 선식, 야채즙 등 제품들이 가정에 매일 아침 배달되듯, 국내 우수 브랜드 제품이 매일 아침부터 소비조합 매점에 배달되어, 고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응대하며 매장 내 장비며 시설물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되도록 점검합니다. 소비조합 매출 증대와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여 매점 운영에 반영하고, 고객 관점에서 제품 가격을 외부 판매점들보다 낮게 판매하면서도 일정 수익을 내어 소비조합 근무자의 든든한 직장으로 자력갱생 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본교 구성원들의 복리 향상을 위해 전 소비조합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비조합의 비전을 소개해 주신다면

본 소비조합은 1997년 2월 학내 건전한 소비 문화를 정착하고 구성원에게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제공하며, 이익금 전액은 구성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기부한다는 설립 목적을 가지고 출발해 올해로 22년 넘게 영업하고 있습니다. 그간 소비조합 전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본교에 장학금도 기부하면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건비 등 각종 경비 상승 대비 매출액 증대의 불균형은 소비조합 영업이익 감소로 이어지고 있지만, 매출 증대와 경비 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조합 설립의 원취자인 본교 구성원에 대한 복지 증진을 위한 정성을 잊지 않을 것이며, 본교 구성원들의 복리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뜻다한 이야기

최근 3년간 소비조합의 영업이익이 매년 상당액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2019년 9월에 소비조합에서는 본교에 학생장학금으로 3,000만원을 기부하였고, 이로써 소비조합 설립 이후 지금까지 본교에 기부한 장학금 기부액이 4억원에 달합니다. 본교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제품가격이 교외 제품 판매점과 비교하여 저렴하지 않거나 학과(부서)에 제공하는 제품이 본교 납품업체에서 제시하는 제품과 비교하여 높게 판매되는 제품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판매하지 않을 것이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구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교내에서 소비되는 제품에 소비조합 제품이 가격 면에서나 질적으로나 충분히 대체 가능한 경우에는, 소비조합 제품을 적극적으로 애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숫자로 보는 소비조합

476,590	2019년도 1학기 중 소비조합 매장을 이용한 고객 수 3월 101,230명, 4월 114,005명, 5월 118,610명, 6월 82,442명, 7월 36,534명, 8월 23,769명	30,000,000	2019년 9월 소비조합에서 본교에 학생장학금으로 기부한 금액
99,427	2019년도 1학기 중 소비조합 매장에서 최다 판매를 기록한 제품인 빵 판매량 이어 청량음료, 이온캔음료, 주스, 가공우유, 스낵, 유산균, 빙과, 일회용품, 라면, 비스킷, 생활 집화 순	400,000,000	2019년 현재 소비조합에서 본교에 학생장학금으로 기부한 기부금 누계액

오윤미 교수, ‘발화 속도’와 ‘정보 전달 속도’ 사이 균형 찾아냈다

오윤미 교수
불어불문학과



아주대 교수가 속한 국제 공동연구진이 언어의 발화 속도가 빠르거나 느리거나 상관없이 유사한 정보량이 전달되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말하는 속도가 빠르다고 언어의 효율성이 높은 것이 아니라, 언어와 화자 간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해 언어의 정보 전달 속도가 최적화된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다. 오윤미 교수(불어불문학과)가 공동 제1저자로 참여한 연구 내용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Science Advances)> 9월4일자(현지시각)로 온라인 게재됐다. 논문의 제목은 <상이한 언어, 유사한 효율성: 인간 의사소통의 적소를 통한 유사한 정보 전달 속도(Different languages, similar efficiency: comparable information rates across the human communicative niche)>이다. 국제 공동연구팀은 크리스토프 꾸베 홍콩대 교수(언어학과), 오윤미 아주대 교수(불어불문학과), 댄 데디유(프랑스 국립 과학연구센터 DDL연구소), 프랑스와 펠레그리노 연구부장(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 DDL연구소)으로 구성됐다.



연구에 따르면, 세계 언어 가운데 스페인어나 일본어와 같이 발화 속도가 빠르거나, 중국어와 태국어와 같이 발화 속도가 느린 언어가 존재하고(특히 성조가 있는 경우), 언어마다 음운 체계와 문법적 특성에 따라 음절당 포함되는 정보량이 동일하지 않았다. 정보 전달 속도(초 당 평균 전달되는 정보의 양)는 정보 밀도와 발화 속도를 통해 산출됐는데, 연구팀은 발화 속도와 정보전달 속도 사이의 균형(trade-off)이 존재한다는 것을 찾아냈다.

오윤미 교수는 “언어 외적인 요소들의 제약 때문에 각 언어와 화자들 간의 긴밀하고 활발한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이를 통해 발화 속도와 정보 밀도 간의 균형이 이뤄진다”며 “이런 현상은 언어 진화의 역동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한 언어의 구조에 변화가 생겨 정보 밀도가 바뀌게 된다면 그 언어를 사용하는 화자들은 최적의 정보 전달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발화 속도를 조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도 한국분자세포학회 ‘젊은 연구자상’ 수상

황순영
대학원, 생명과학과



아주대 황순영 학생(대학원, 생명과학과)이 한국분자세포학회에서 주최한 2019년도 국제학술대회(International Conference of Korean Society for Molecular and Cellular Biology, 이하 ICKSMCB 2019)에서 올해 젊은 연구자상(Young Investigator Research Award)을 수상했다.

황순영 학생이 수상한 ‘Young Investigator Award’는 생명과학 분야 대학원생 또는 석박사 학위자로서 학계, 산업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우수한 연구 활동을 하는 젊은 연구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황순영 학생의 발표 제목은 <절단된 DNA에서의 CTCF의 역할(A role of CTCF at broken DNAs)>로, 유전체 손상 중 가장 위험한 DNA 이중가닥이 끊어졌을 때 이를 정확하게 복구할 수 있는 CTCF 단백질 작용에 관한 연구이다. 해당 연구는 이종수 교수(생명과학과)의 지도 하에 진행된 <생체 내 유전체의 손상을 정확하게 복구하는 조절 시스템 연구>의 성과이다.

황순영 학생은 암을 대상으로 한 연구 분야 중 유전체 손상 반응 연구를 통해 인용지수 11이상인 학술지를 포함한 SCI 저널에 제1저자로 3편의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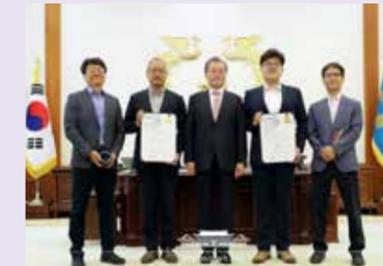


‘200만 번째 특허 발명자’로 등록… 대통령 청와대 초청

김용성 교수
응용화학생명공학과·대학원 분자과학기술학과



아주대 김용성 교수(대학원 분자과학기술학과)가 200만 번째 특허 발명자로 기록됐다. 청와대는 지난 9월19일 문재인 대통령이 200만 번째 특허증과 100만 번째 디자인등록증 수여식을 열고 직접 등록증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김용성 교수는 200만 호 특허증의 발명자로서 수여식에 초청받았다. 김용성 교수가 발명한 200만 호 특허는 치료용 항체를 통한 중앙역제 바이오 기술이다. 특허 제목은 ‘엔도좀 탈출구조(세포 내 흡입에 의해 만들어지는 막주머니) 모티프 및 이의 활용’이다. 해당 특허 기술을 활용한 (주)오름테라퓨틱 이승주 대표가 200만 호 특허권자로 특허증을 받았다. 청와대는 200만 호 특허등록은 1946년 특허제도가 도입된 이후 73년 만의 성과로,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독일, 중국에 이어 세계 7번째라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에 특허청장이 서명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대통령이 직접 특별증서에 서명하는 행사를 마련한 것은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기술패권에 대응하고 기업인, 과학기술인들의 혁신 성과를 격려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1948년 제1호 특허 이후 200만 호 특허까지 70년 정도 걸렸다”며 “암 치료에 도움이 되거나 우리 국민들의 안전에 도움이 되는 기술과 디자인으로 200만 호, 100만 호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김용성 교수는 “특허는 곧 원천기술이라는 대통령의 말에 공감하고, 그래서 기술 개발 지원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일각에서는 특허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특허 인식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지원 ‘미래기술육성사업 지정테마 지원과제’ 선정

이상운 교수
물리학과·대학원 에너지시스템학과



아주대 이상운 교수(물리학과·대학원 에너지시스템학과)팀이 삼성전자가 지원하는 ‘2019년도 미래기술 육성사업 지정테마 지원과제’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이상운 교수팀은 한양대 박태주 교수팀(PJ)을 비롯해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장재혁 박사팀, 홍익대 송봉근 교수팀과 함께 차세대 전자소자 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7월9일 삼성미래기술육성센터가 지원하는 지정테마 과제 총 15개를 선정했다. 삼성전자는 국가적으로 필요한 미래 기술분야의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2014년부터 이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올해 지정 테마 과제는 ▲혁신적인(Disruptive) 반도체 소재 및 소자-공정 기술 ▲차세대 디스플레이 ▲ 컨슈머(Consumer) 로봇 ▲ 진단 및 헬스케어 솔루션 등 4개 분야이다. 삼성전자는 혁신적인(Disruptive) 반도체 소재 및 소자-공정 기술 분야에서 6개 과제,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5개 과제, 컨슈머(Consumer) 로봇 분야에서 2개 과제, 진단 및 헬스케어 솔루션 분야에서 2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상운 교수팀은 혁신적인(Disruptive) 반도체 소재 및 소자-공정 기술 분야에서 선정됐다.

이상운 교수팀은 9월부터 ‘비(非) 단결정 이종접합 기반 저차원 전자 기체 소자 구현 및 응용’을 위해 반도체 소재-공정-소자 관련 혁신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 연구를 위해 한양대학교, 기초과학연구원, 홍익대학교 연구그룹과 함께 3년간 총 15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이상운 교수는 “이번 연구가 국내 반도체 분야 신기술 개발 뿐만 아니라 반도체 분야 신진 인력 양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주관 인력양성프로그램 연이어 선정

서형탁 교수

신소재공학과·대학원 에너지시스템학과



아주대 서형탁 교수 연구팀 소속 연구원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인력양성프로그램인 '해외 우수신진연구자 유치사업'과 '한국 이공계 대학원생 캐나다 연수프로그램'에 연이어 선정됐다. 연구팀은 이번 사업 수행을 통해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이 사업을 통해 아주대 서형탁 교수 연구팀 소속 박사후연구원으로 최근 임용된 란비어 싱(Ranveer Singh) 박사는 2019년 해외 우수신진연구자 유치사업 공모에 '전자구조 제어 기반 핫 캐리어 에너지 전환 소재 및 소자 개발'이라는 연구주제를 제안해 선정됐다. 지도교수는 서형탁 교수가 맡았다. 이번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4년 4개월간 총 3억여원의 신진연구원 인건비, 체재비, 연구활동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서형탁 교수는 "이번 인력양성사업 선정으로 아주대의 국제적 위상 재고와 대학원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후에도 대학원생들의 우수 해외 연구기관 진출과 우수 해외 연구자 유치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 8월에는 연구실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상연 박사도 싱가포르 난양이공대에(세계QS랭킹 12위, 아시아QS랭킹 1위, Best Young Univ. 랭킹 세계 1위) 박사후연구원 펠로우쉽에 선정되는 성과를 얻었다. 이처럼 서형탁 교수 연구팀은 인도 및 싱가포르, 캐나다의 우수 연구 그룹과 자연스럽게 공동연구를 기획·진행하는 구심점이 되고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잠재력과 역량 있는 해외 신진연구자가 국내에 장기체류해 우수성과를 창출하고 우리나라 연구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성장지원 체계 구축하고자 매년 '해외 우수신진연구자 유치사업'을 공모하고 있다.

국방디지털융합학과 졸업생, 국제 SCI급 논문 게재

이주형

국방디지털융합학과



아주대 국방디지털융합학과 1기 졸업생 이주형 소위(현 공군 소위, 학사 142기)가 4학년 재학 시 제출한 논문이 <IEEE Systems Journal>에 게재됐다.

<IEEE Systems Journal>은 국제 SCI급 저널로 Operations Research & Management Science 분야에서 상위 8% 이내(분야 내 84개 SCI급 저널 중 6위, Impact Factor 4.463)에 속하는 저널이다. 이주형 졸업생이 제1저자로, 공동 저자는 논문연구 지도를 맡은 국방디지털융합학과 백호기 교수와 임재성교수이다.

논문의 제목은 <Cooperative Sensing Scheme for Acquisition of Rotational Synchronization of Radar>이다. 이주형 소위는 회전 레이더가 사용하는 주파수를 인지 라디오 네트워크(Cognitive radio network)에서 효과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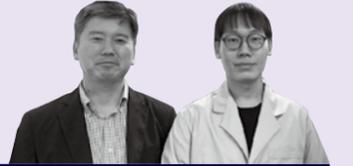
이주형 소위는 "인지 라디오 네트워크에 소속된 노드들이 협업을 통해서 회전 레이더 주파수를 센싱하고 레이더의 회전 동기를 정확하게 획득할 수 있는 기법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주형 소위가 제안한 기법을 통해 레이더 간섭을 피해 주파수를 효과적으로 공유함으로써, 레이더 대역을 활용한 무선통신 분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효소모방 촉매 시스템' 개발, 새로운 패러다임 열어

박은덕 교수

화학공학과·대학원 에너지시스템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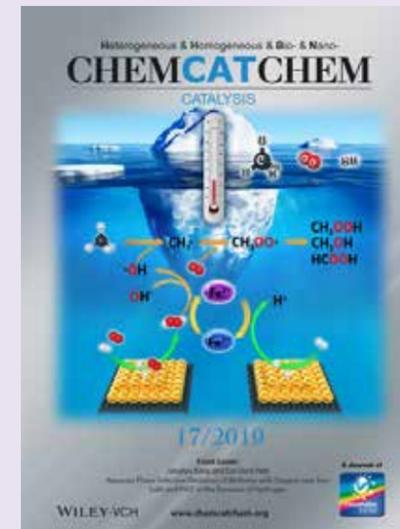
아주대 연구진이 셰일가스 등 천연가스의 주성분인 메탄을 상온에서 산화시킬 수 있는 '효소모방 촉매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에 따라 풍부한 에너지 자원인 천연가스를 화학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게 됐다.

박은덕 교수는 최근 매우 온화한 조건에서도 메탄을 빠른 속도로 산화시킬 수 있는 철 화합물과 금속 촉매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는 촉매분야의 저명 학술지인 <ChemCatChem>에 9월호 표지 논문으로 선정됐다. 논문의 제목은 <수소 존재하에서 철염과 Pd/C촉매 상에서 산소를 이용한 메탄의 수용액상 선택적 산화(Aqueous-Phase Selective Oxidation of Methane with Oxygen over Iron Salts and Pd/C in the Presence of Hydrogen)>이다. 해당 논문의 제1저자로는 강종규 학생(에너지 시스템학과, 박사과정)이 참여했다. 연구팀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메탄 산화 효소를 모방해 철이온을 활성금속으로 사용하고 공기중의 산소를 산화제로 사용한 촉매 시스템을 제안했다. 이는 NAD(P)H를 환원제로 사용하는 효소시스템과 달리 산업적으로 제조가 용이한 수소를 환원제로 사용해 연속적으로 메탄을 산화시킬 수 있는 촉매 시스템이다.

박은덕 교수는 "해당 연구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메탄 산화 효소를 모방하여 산업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메탄 산화시스템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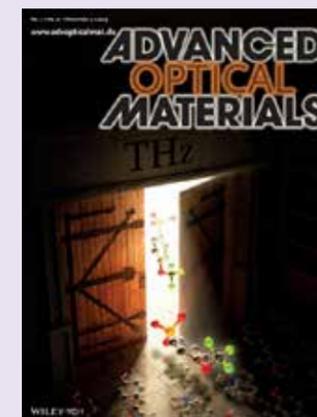
이어 "천연가스 중에 가장 안정한 메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됨으로써 기존에 연료로만 주로 사용되던 다른 가스자원을 화학제품으로 활용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며 "매우 안정한 메탄을 공기 중의 산소를 이용하여 산화시킬 수 있기에 앞으로 수질오염이나 토양오염을 유발하는 난분해성 물질을 경제적으로 처리하는 친환경기술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오필 교수, 불소 이용한 새로운 광변환 소재 개발

권오필 교수 연구팀

응용화학생명공학과·대학원 분자과학기술학과



아주대 권오필 교수(응용화학생명공학과·대학원 분자과학기술학과) 연구팀이 불소를 이용한 새로운 광변환 소재를 개발했다. 권오필 교수는 11월4일 새 광변환 소재 개발 연구 성과가 광학분야 저명학술지인 <어드밴스드 옵티컬 매터리얼즈(Advanced Optical Materials)> 11월 표지 논문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논문 제목은 <새로운 퀴놀리늄 단결정을 이용한 고효율 광대역 갭-프리 테라헤르츠 광원(Efficient Gap-Free Broadband Terahertz Generators Based on New Organic Quinolinium Single Crystals)>이다. 이번 연구에서 연구팀은 불소 치환체를 음이온에 도입해 형성된 직교형태의 구조가 빛의 특성을 조절하는 광학 소재를 개발했다.

권오필 교수는 "이번 연구는 기존 단순히 불소 치환체를 도입하는 연구에서 형태특이성이 있는 불소 치환체를 음이온에 도입해 빛의 특성을 바꾸는 진일보한 연구"라며 "이는 다양한 광변환 소재의 새로운 설계기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VENT

외상환자의 생명줄, 아주대의료원 닥터헬기 운항 시작

아주대의료원이 닥터헬기 운항 시작을 알렸다.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인 아주대의료원은 7번째 닥터헬기 출범식을 9월6일 개최했다. 아주대의료원이 도입한 닥터헬기는 다른 권역에 도입된 6대와 달리 전국 최초로 24시간 운영된다. 이국종 교수를 단장으로 한 <경기도 외상체계지원단>은 닥터헬기를 활용해 예방가능 외상사망률을 줄이고, ▲경기 남·북부 권역외상센터 지원 ▲예방가능외상사망 평가 ▲조사 및 개선방안 도출 ▲위기대응 수준 향상을 위한 소방·의료인력 교육 훈련 등을 통해 닥터헬기 운영 효율성을 높일 전망이다. 앞서 아주대의료원은 지난해 7번째 닥터 헬기 운영으로 선정된 이후 응급환자의 효율적 치료를 위해 새로운 운영 방식을 시범사업으로 준비했다. 이에 따른 결과로 닥터헬기는 24시간 출동 대기하고, 구조 활동도 병행하게 됐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실족에 따른 추락사고 등으로 인한 중증외상환자를 구조해 병원 이송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국종 교수는 “새로운 닥터 헬기가 DMZ(비무장지대)부터 남해 섬과 동해까지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커버해 외상환자들의 생명을 구할 기회를 줄 것 같다”며 “전국 외상 의료 체계에 포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헬기 곳곳에 고(故) 윤한덕 센터장을 기리는 ‘아틀라스’를 새겼다”며 “그의 희생정신을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EVENT

아주대 수시모집 경쟁률 16:1 기록

아주대 2020학년도 수시모집 마감 결과, 최종 경쟁률 16.4대 1을 기록했다. 모집인원 1,633명을 선발하는 수시모집에 2만6,784명이 지원했다. 최고 경쟁률은 기록한 학과는 의학과로, 수시 논술우수자전형 경쟁률이 242.4대 1로 가장 높았다. 모집인원 10명에 2,424명의 지원자가 몰렸다. 심리학과 역시 8명 모집에 657명이 지원해 82.1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어 ▲소프트웨어학과(76대 1) ▲경영학과(71.47대 1) 등의 순으로 경쟁률이 높았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낸 전형은 61.8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논술우수자전형이다. 지난해 경쟁률인 76.17대 1보다 소폭 하락했다. 전형별로는 학업우수자전형 290명 모집에 1,626명이 지원해 5.6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전형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학과는 생명과학과로 5명 모집에 64명이 몰려 12.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물리학과에는 5명 모집에 50명이 몰려 경쟁률이 10대 1이었다. 이어 ▲정치외교학과(9.6대 1) ▲사학과(8.4대 1) 등의 순으로 경쟁률이 높았다. 학생부종합전형 경쟁률은 ▲학생부종합전형(ACE) 11.16 대 1 ▲학생부종합전형(SW융합인재전형) 11.13 대 1 ▲학생부종합전형(다산인재) 11.16 대 1 ▲학생부종합전형(고른기회 I) 14.43대 1 ▲학생부종합전형(고른기회 II) 18.34 대 1 ▲국방비우수인재전형 1.8.4대 1 ▲특수교육대상자특별전형 4.1대 1 ▲논술우수자전형 61.82대 1 ▲학생부종합전형(특성화고등을졸업한재직자) 3.63 대 1 ▲체육우수자(축구)전형 3.08대 1을 나타냈다. 그 외 학생부종합전형(ACE)에서는 의학과가 20명 모집에 574명이 몰려 경쟁률 28.7 대 1을 나타냈고, 문학콘텐츠학과에는 16명 모집에 384명이 몰려 24대 1을 기록했다. 이어 ▲심리학과(21.47대 1) ▲화학과(20.87대 1) ▲간호학과(16.29 대 1) 순으로 높은 지원율을 보였다.



EVENT

“꿈의 사다리를 놓다” ‘파란사다리’ 성과 발표회

2019년도 제2기 파란사다리 참가자 학생들의 성과발표회가 지난 9월18일 아주대 도서관 북카페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올 여름 중국과 미국 명문대학 3곳으로 연수를 다녀온 파란사다리 참가자를 비롯해 박형주 총장과 파란사다리 제1기 참가자, 교수 및 직원들이 참석했다. 정창재 학생(경제학과 16, 미국 미시간대 파견)은 “막상 가서 새로운 환경에 부딪혀보고 해보지 못했던 도전을 해보니 스스로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이효진 학생(국방다지탈융합학과 18, 워싱턴대 파견)은 “워싱턴 대학에서 4주간의 생활을 통해 실제 미국 대학생이 된 것 같아 너무 좋았고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하여 세계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에 박형주 총장은 “인생을 살다 보면 시행착오도 생기고 계획한 대로 안 되는 것도 생기고, 좌절의 순간도 찾아온다”며 “그래도 꿈을 크게 갖자”고 참가 학생들을 격려했다. 파란사다리 프로그램은 취약 계층 대학생들을 위한 해외 연수 프로그램으로, 아주대가 지난 2015년 시작한 “AFTER YOU 프로그램”이 모태가 됐다. 파란사다리 사업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기 계발과 진로 개척을 위해 노력하는 대학생에게 해외 연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올 한해 총 대학생 1,200명을 선발해 연수 경비를 지원하고, 선발된 학생들은 올 여름 해외 대학에서의 4주간 어학연수 및 문화체험을 참여했다. 올해 아주대는 파란사다리 사업의 주관대학으로 선정돼 100명의 학생(아주대 80명, 타대학 20명)을 선발하고 해외 연수를 진행했다. 학생들은 여름 방학 4주 동안 미국 미시간대학교, 워싱턴대학교와 중국 상해교통대학교에 다녀왔다. 참가 학생 선발은 기존의 아주대 “AFTER YOU 프로그램”과 같이 학점·어학 등이 아닌 자기 계발과 미래에 대한 잠재력과 의지 등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학생들의 교육 비용은 한국장학재단의 지원(70%)과 아주대 유쾌한 반란 기금(30%)으로 마련됐다. 유쾌한 반란 기금은 이 프로그램의 취지에 동참한 교내의 인사들의 기부금으로 조성된다.



PEOPLE

“연결되는 동북아로” 박형주 총장 연변대학교 방문

아주대 박형주 총장이 중국 연변대학교를 방문해 동북아시아 주요대학 총장들과 교류 확대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행사에는 서울대, 부산대 등 주요대학의 총장을 비롯해 중국에서는 길림대 총장 등 19개 대학, 일본의 메이지대, 북한의 김일성 종합대학 총장 등 총 30여개 대학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박형주 총장은 동북아시아 대학 총장 원탁회의에 참석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대학교육의 미래>를 주제로 토론했다. 박형주 총장은 “지금 시대는 양질의 강의와 자료가 인터넷으로 제공되고 있어 각 대학이 잘하는 분야를 다른 대학과 교류협력하여 확대해야 한다”며 “사회문제 해결 등 대학 본연의 역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형주 총장은 이번 중국 방문길에 아주대 졸업 동문들을 만났다. 박연희 연변대학교 교수(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박사)를 비롯해 김용호 연변대학교병원 정형외과 교수(아주대 의과대학 석박사), 최일화 혈액내과 교수(아주대 의과대학 석박사), 현지 기업가 권화나 등 문 등이 참석했다. 동문들은 학술교류 지원과 연구활동 지원을 제안했고, 이에 박형주 총장은 적극 검토를 약속했다.



EVENT

학생 주도 청사진협동조합, ‘물순환 도시’ 실현 나서

아주대 재학생으로 구성된 '청사진 협동조합(이사장 김태산, 미디어학과 4학년)'이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물환경센터와 물순환도시 구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나선다. 청사진 협동조합은 9월30일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과 물순환도시를 실현시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청사진 협동조합은 지난 7월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산하 물환경센터를 방문해 물환경센터에서 진행한 '하천입양제'사업에 참여했다. 하천입양제란 수원시민들에게 수원시에 위치한 하천을 입양해 시민들 스스로 하천을 가꾸고 보살피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 체결로 청사진 협동조합은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의 물순환도시 구현 및 시민인식 증진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하천 입양제를 통한 하천활동의 활성화에 기여 ▲환경 보전 및 복원을 위한 정보 공유·활용을 통한 협업사업 추진 ▲물환경네트워크 주체에 대한 정책·학습·사업·홍보의 교류 ▲협업사업을 통한 수원시민의 환경인식증진 상호협력 등 수원시 지역 내 물환경 관련 문제들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산 청사진 협동조합 이사장은 “수원 지역의 물환경과 도시재생 등 다양한 사회적문제 해결 기반을 다져주는 계기가 이번 업무협약식을 통해 마련됐다”며 “청년들의 추진력과 의지를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시고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PEOPLE

박형주 총장, 우수교원 확보 위해 한미과학기술학술대회 참석

아주대 박형주 총장이 한미과학기술학술대회에 참석해 우수교원 확보에 나섰다. 아주대는 8월14일부터 17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한미과학기술학술대회(이하 UKC, US-Korea Conference on Science, Technology and Entrepreneurship)에 참가해 학교 홍보부스를 마련했다. UKC는 매년 KESA 주관으로 개최되는 재미 한인 과학자 컨퍼런스로, 올해에는 연구원과 Post-doc 등 한인과학자 1,000여 명이 참석했다. 박형주 총장은 ‘대학 리더십 포럼’ 패널로 참여해 오세정 총장(서울대), 김혜숙 총장(이화여대), Robert Zimmer 총장(시카고대) 등과 함께 <Future proofing the Workforce>를 주제로 토론했다.



AWARD & SELECTION

“끝까지 잘 달렸다”
소학회 A-FA
‘자작자동차 대회’ 금상

아주대 재학생으로 구성된 소학회 A-FA팀이 '2019 대학생 자작자동차 대회'에서 종합 2위를 차지, 금상을 수상했다.

'2019 KSAE 자작자동차 대회'는 8월16일부터 18일까지 군산새만금센터에서 열린 국내 최대규모의 대학생 자작자동차 대회로, 학생들이 자동차를 직접 설계·제작하는 과정을 통해 자동차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이고 미래자동차 아이디어의 경연장이다.

대회는 ▲Baja(오프로드) ▲Formula(온로드) ▲EV(전기차) ▲기술부문(기술아이디어, 디자인) 등 총 4개 부문으로 나뉘어 전국 98개 대학에서 187개 팀, 270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다.

아주대 소학회 A-FA팀은 101개 팀이 참가한 Baja부문에서 ▲차량검사 ▲동적성능 ▲내구경기성적 등의 평가에서 종합 2위로 금상을 차지해 상금 200만원과 상패를 수상했다. 오프로드 Baja(바하) 경기는 125cc의 국산엔진을 사용해 힘로주파(동적성능)와 1.29km의 오프로드 트랙을 35 바퀴(내구성능)를 돌아 우승팀을 가린다.

아주대 학생들은 이번 대회에서 ▲Formula(온로드) 2팀 ▲Baja(오프로드) 1팀으로 나누어 출전했다. Baja팀에는 김연서 학생을 필두로 16명의 팀원이 참여했다. 전용호 지도교수(기계공학과)는 “많은 지원을 해주지 못했음에도 훌륭한 결과를 도출한 학생들이 자랑스럽다”며 “팀원 모두가 포기하지 않고 끈기있게 만들어 낸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회 설계 총괄을 담당한 김연서(기계공학과) 학생은 “지난 2014년 은상 수상 이후 5년만에 큰 상을 받아 기쁘다”며 “다양한 아이디어와 높은 강도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설계·제작에 모두 한뜻으로 참여해 이뤄낸 결과”라고 소감을 밝혔다.



PEOPLE

“아주의 성장에 감명”
옛 프랑스 교수진
아주캠퍼스 방문

개교 초기에 아주대에 재직했던 프랑스인 교수 4명이 부동반으로 지난 9월20일 아주캠퍼스를 다시 찾았다. 프랑스인 교수 4명은 지난 1975년부터 1980년 사이에 아주대 교수로 재직했다. 이들의 방문은 아주대 전자공학과 74학번 동문인 권영민 중앙대 교수를 통해 성사됐다.

이날 프랑스 교수단은 박형주 총장을 접견하고, 불어권협력센터와 전자공학과, 기계공학과를 방문했다. 교수진은 1970년대 초반 아주대 초기시절 사진 자료 60점을 중앙도서관 대학사료실에 기증했다. 기증자료는 2023년 개교 50주년을 앞두고 기념사업을 준비 중인 중앙도서관 대학사료실에서 보관될 예정이다.

Michel Joubert 교수(1975년~1977년 아주대 전자공학과 재직)는 “지난 40년 동안 발전한 아주대학교의 모습에 감명을 받았으며, 프랑스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아주의 성장에 매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EVENT

더 넓은 세상을 향하여,
‘2019 Study Abroad Fair’ 개최

가을 학술제 기간 동안 재학생을 대상으로 ‘2019 Study Abroad Fair’가 개최됐다.

아주대는 9월24일부터 3일간 학생들에게 해외 경험과 파견학교의 생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이번 ‘2019 Study Abroad Fair’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국제교류팀이 해외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해 주최했다.

부스를 방문한 학생들에게는 교환학생 및 단기파견,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 등에 대해 안내했다. 그 외에도 교환학생 프로그램, 동계 단기파견 프로그램과 해외 인턴십 파견 등에 대한 현장 상담이 이뤄졌다.



중양일보

아주대, 중앙일보 대학평가 전국 11위
- 창업교육비율 1위 -

종합평가 순위 (한정: 300점)

순위	대학명	점수
1	서울대	236
2	성균관대	221
3	한양대(서울)	211
4	연세대(서울)	209
5	고려대(서울)	203
6	경희대	180
7	중앙대	173
8	서강대	171
9	이화여대	169
10	한양대(ERICA)	169
11	아주대	164
12	서울시립대	163
13	한국외국어대	162
14	건국대(서울)	161
15	인하대	160
16	국민대	159
17	동국대(서울)	157
18	부산대	155
19	숙명여대	151
20	전북대	149
21	서울과학기술대	147
22	세종대	146
23	경북대	142
24	인천대	140
25	전남대	139
26	충남대	138
27	홍익대	136
28	충북대	130
29	가천대 가톨릭대	129



아주대가 ‘2019 중앙일보 대학평가’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전국 11위를 차지했다. 아주대는 서울권 대학을 제치고 세부 평가항목별로 고르게 상위권을 기록했다. 특히 아주대는 평가 항목 가운데 창업교육비율에서 전국 1위를 기록해 창업교육의 메카로 떠올랐다.

아주대가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데는 도전적이고 선도적인 교육 프로그램에 힘입은 바가 크다. 아주대의 ‘파란학기제-아주 도전학기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찾아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도입됐다.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된 파란학기제는 전국 대학 최초로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도전 과제를 설계하고 실천해 학점을 받는 프로그램이다. 여기에 정형화된 대학교육의 울타리를 벗어나려는 아주대의 도전이 집약되어 있다. 또한 아주대는 이론부터 실천까지 창업의 전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창업 강좌를 개발·개편하고 ‘창업트랙’ 등 창업 교육과정을 확대해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창업의지를 심었고 이에 긍정적인 결과를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 외 아주대는 다른 평가 영역 가운데 ▲현장실습 참여학생 비율 4위 ▲외국인 학생 다양성 4위 ▲유지취업률 12위 등 우수한 평가 결과를 기록했다. 교수연구 분야에서도 과학기술교수당 기술이전수입료 11위를 기록하는 등 대학의 연구역량과 산학협력 실적도 지난해보다 크게 올랐다. 높은 순위를 기록한 현장실습과 유지취업률의 경우 아주대만의 특화된 현장 중심 교육이 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에 기여한 것으로 보여진다.

아주대학교는 종합설계동 1층 반도체 클린룸을 갖추고 판교와 삼성 등 인근 산업 단지에 우수 인재 공급 여건 갖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런 우수 시설을 통해 반도체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해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직업을 미리 체험해봄으로써 직업 만족도 상승을 이끌고 유지취업률을 높일 수 있었다.

지난 11월16일 발표된 중앙일보의 대학종합평가는 인문·사회·자연과학·공학·의학·예체능 가운데 4개 이상 계열을 보유한 종합대학을 평가 대상으로 한다. 올해로 26년째 진행되고 있어 전통성과 신뢰성을 더하고 있다.





‘ONE TEAM’으로 몽친 우리!



김흥환
(주)엘에이티 대표이사
아주대 축구부 제3대 후원회장
경영대학원 석사 59기

제 이야기에 앞서 우리 대학 축구부에 대한 소개가 우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의 클럽운영 방침의 일환으로 1982년 3월17일에 창단된 축구부는 전국 대학 축구부 중 가장 많은 예산과 시설 등의 특별 지원을 받아 운영되어 왔습니다. 창단 3년만인 1984년 제65회 전국체전 우승을 시작으로 수년간 전국대회 우승과 준우승을 한 차례도 놓치지 않으며 단기간에 대학축구의 강자로 급부상하였으며 수많은 국가대표 선수를 배출하였지요. 2000년대 후반 들어 아주대학교 프랜차이즈 스타 하석주 감독을 영입하고 팀 재정비와 경기력 강화에 대학이 힘을 쏟음으로써 전국대회 우승과 더불어 2010년 전국 대학 리그에서 항시 수도권 1, 2위를 다투는 축구 명문으로 재도약하여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아주대학교 축구부와 인연을 맺던 때가 떠오릅니다. 경영대학원 석사과정 59기로 입학하여 열심히(?) 공부만 하던 중, 우연치 않은 기회에 우리 대학에 축구부 그리고 후원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후원이사로 들어올 것을 학교로부터 권유받았을 때, 저는 조금도 망설이거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찾아서라도 봉사할 하는데 내 모교와 후배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힘을 보탤 수 있다는 것은 저 스스로가 즐겁고 행복해지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허나 올봄 맡게 된 후원회장이라는 자리는 이전과는 달리 사뭇 무겁게 느껴지더군요. 어떤 일을 해야 할까? 무엇을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많은 생각들 속에 두 가지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추어 스포츠는 관심과 지원으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학생 선수들이 가진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늘 관심을 갖고 자주 들여다보아야 하고, 지원이 필요한 일이 있다면 두 팔 걷어붙이고 앞장서야 합니다. 다른 바람 없이 순수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의 전부이며 후회 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저에게는 저와 뜻을 함께하는 10명의 후원이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축구가 11명이 한 팀으로 하는 경기이듯, 우리 아주대학교 축구부 후원회는 저를 포함한 11명이 'ONE TEAM'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같이 생각하고 같이 고민하여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을 모두가 함께 해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연결'이자 '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빠른 속도로 세상이 변하고 대학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하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변치 않아야 할 대학 교육의 목적은 '사람'을 키워 우리 사회로 내보내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대학 구성원이 지켜내야 할 '가치' 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이 학생 선수들을 키워내는 일에 우리 후원회의 작은 도움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분명 축구부를 그리고 우리 대학을 더 나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는 아주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A**

1년에 250명의 학생에게 120만 원씩 장학금을 지원하려면 매달 약 2,500만 원의 모금액과 2,500여 명의 기부자 필요합니다(아주사랑111 1구좌 기준).
전화: 031-219-2107~9 / 2099 메일: ajousarang@ajou.ac.kr 약정서 사진 혹은 스캔 송부
팩스: 031-219-1623 우편: 1649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 아주대학교 대학발전팀 <111 아주아주클럽> 담당자 앞

권익진	김병준	김원식	김한중	문재호	박일석	서애경	신종대	엄준희	유현준	이문근
권인철	김병진	김유권	김행숙	문태심	박일임	서영대	신준한	염경호	유호상	이문상
권재근	김병태	김유신	김현규	문현배	박재경	서영환	신진욱	염동일	유희석	이미남
권재일	김복순	김윤경	김현준	문형열	박재관	서은원	신창호	예홍진	유희찬	이미선
권주빈	김복희	김윤태	김현	문혜원	박재필	서은지	신태창	오귀석	윤형민	이미애
(주)성호스텐 김기권	김봉배	김은규	김현기	(주)매경조주	박재범	서정남	신하영	오귀훈	윤경미	이미영
(주)에이피피	김봉춘	김은선	김현덕	민경호	박재연	서정덕	신항수	오영일	오성원	이미희
(주)한빛메디칼	김상동	김은숙	김현미	민병윤	박재홍	서정혁	신현국	오상경	오상운	이민
김동근	김상욱	김은주	김현우	민병희	박정미	서창희	신현남	오상원	윤상억	이민경
김정규	김상진	김은한	김형규	민중식	박정욱	서형석	신현숙	오성원	윤석희	이민규
김경란	김상진	김은호	김형준	민준기	박정용	서형탁	신현주	오세창	윤순장	이민섭
김경원	김선숙	김은희	김형진	민찬규	박정훈	서화덕	신형섭	오세태	윤승현	이민호
강두경	김선이	김인수	김혜선	민철기	박종경	서희석	신호준	오수근	윤영민	이병선
강영구	김가영	김일수	김혜진	민행기	박종민	석명숙	심강희	오순아	윤영준	이병조
강인구	김건	김일수	김혜영	민행기	박종석	신우명훈	심상진	오애경	윤원식	이병철
강병도	김건식	김일숙	김혜정	민홍용	박종설	신종연	심우성	오영태	윤일수	이봉선
강병욱	김경숙	김장훈	김혜정	박경준	박종식	설용호	심우철	오영택	윤재승	이봉주
강석배	김경아	김재경	김홍찬	박경호	박종용	성민제	심인국	오영택	윤정용	이봉성
강석훈	김경태	김재욱	김홍주	박광배	박종화	성현	심재국	오재영	윤준구	이상운
강석환	김경현	김재은	김홍식	박권수	박지인	세이프건설(주)	심정철	오정락	윤준근	이상현
강선숙	김경희	김재정	김희선	박규태	박진일	소병천	심정현	오주영	윤준근	이상현
강선영	김경희	김재현	김희선	박근우	박진동	소의영	심현중	오주영	윤준근	이상현
강영복	김관균	김재호	김희선	박기원	박철균	손석상	안명미	오백원	윤준기	이상현
강영일	김광석	김정철	김희연	박기준	박총필	손순환	안민주	왕지남	윤치영	이상훈
강윤환	김규용	김정선	김희정	박대규	박태일	손연진	안병일	왕훈식	윤태영	이석원
강은양	김국수	김정성	나은우	박대열	박해심	손정훈	안병열	왕세종	윤필영	이석원
강익근	김규봉	김정수	나창주	박대원	박형범	손준진	안보람	왕은희	윤희진	이석원
강우성	김규봉	김정우	나충주	박동애	박형진	손지영	안보람	왕은희	윤희진	이석원
강진모	김규철	김정현	나태영	박동진	박형진	손태식	안선미	왕도겸	윤혜경	이선이
강태석	김근배	김정현	나태연	박동진	박희태	손현숙	안선호	우동윤	윤혜진	이성식
강하중	김근수	김종길	나환수	박동진	박희태	송경민	안성남	우리저텔테크	윤희진	이성식
강해순	김근홍	김종남	남경숙	박동진	박희태	송경민	안성철	우병주	윤희진	이성아
강호출	김근태	김종석	남경택	박명수	박희태	송경수	안세훈	우성운	윤희진	이성운
강희정	김근표	김종숙	남경희	박문순	방병천	송경수	안세훈	우신석	윤희진	이성운
경민호	김근희	김종환	남규태	박민경	배공주	송규현	안영숙	우원식	윤희진	이성진
경정현	김기섭	김종준	남미향	박민규	배나식	송기상	안영찬	우정석	윤희진	이성희
고강현	김기섭	김종태	남상균	박민규	배나식	송기정	안영찬	우정석	윤희진	이성희
고민진	김기준	김종환	남상균	박민규	배나식	송기정	안영찬	우정석	윤희진	이성희
고병수	김기태	김종현	남정호	박민규	배나식	송기정	안영찬	우정석	윤희진	이성희
고병호	김기호	김종현	남현우	박민규	배나식	송기정	안영찬	우정석	윤희진	이성희
고봉석	김기현	김종현	남현우	박민규	배나식	송기정	안영찬	우정석	윤희진	이성희
고순재	김나현	김종현	남현우	박민규	배나식	송기정	안영찬	우정석	윤희진	이성희
고우리	김나현	김종현	남현우	박민규	배나식	송기정	안영찬	우정석	윤희진	이성희
고유경	김나현	김종현	남현우	박민규	배나식	송기정	안영찬	우정석	윤희진	이성희
고재만	김나현	김종현	남현우	박민규	배나식	송기정	안영찬	우정석	윤희진	이성희
고재용	김나현	김종현	남현우	박민규	배나식	송기정	안영찬	우정석	윤희진	이성희
고재욱	김나현	김종현	남현우	박민규	배나식	송기정	안영찬	우정석	윤희진	이성희
고지애	김나현	김종현	남현우	박민규	배나식	송기정	안영찬	우정석	윤희진	이성희
공태준	김나현	김종현	남현우	박민규	배나식	송기정	안영찬	우정석	윤희진	이성희
곽기인	김나현	김종현	남현우	박민규	배나식	송기정	안영찬	우정석	윤희진	이성희
곽병철	김나현	김종현	남현우	박민규	배나식	송기정	안영찬	우정석	윤희진	이성희
곽원중	김나현	김종현	남현우	박민규	배나식	송기정	안영찬	우정석	윤희진	이성희
구병준	김나현	김종현	남현우	박민규	배나식	송기정	안영찬	우정석	윤희진	이성희
구병준	김나현	김종현	남현우	박민규	배나식	송기정	안영찬	우정석	윤희진	이성희
구성해내과의원	김나현	김종현	남현우	박민규	배나식	송기정	안영찬	우정석	윤희진	이성희
구유희	김나현	김종현	남현우	박민규	배나식	송기정	안영찬	우정석	윤희진	이성희
구재근	김나현	김종현	남현우	박민규	배나식	송기정	안영찬	우정석	윤희진	이성희
권기종	김나현	김종현	남현우	박민규	배나식	송기정	안영찬	우정석	윤희진	이성희
권기형	김나현	김종현	남현우	박민규	배나식	송기정	안영찬	우정석	윤희진	이성희
권대진	김나현	김종현	남현우	박민규	배나식	송기정	안영찬	우정석	윤희진	이성희
권만구	김나현	김종현	남현우	박민규	배나식	송기정	안영찬	우정석	윤희진	이성희
권상호	김나현	김종현	남현우	박민규	배나식	송기정	안영찬	우정석	윤희진	이성희
권영민	김나현	김종현	남현우	박민규	배나식	송기정	안영찬	우정석	윤희진	이성희
권순호	김나현	김종현	남현우	박민규	배나식	송기정	안영찬	우정석	윤희진	이성희
권영민	김나현	김종현	남현우	박민규	배나식	송기정	안영찬	우정석	윤희진	이성희
권오성	김나현	김종현	남현우	박민규	배나식	송기정	안영찬	우정석	윤희진	이성희
권오일	김나현	김종현	남현우	박민규	배나식	송기정	안영찬	우정석	윤희진	이성희
권오필	김나현	김종현	남현우	박민규	배나식	송기정	안영찬	우정석	윤희진	이성희
권용길	김나현	김종현	남현우	박민규	배나식	송기정	안영찬	우정석	윤희진	이성희
권우택	김나현	김종현	남현우	박민규	배나식	송기정	안영찬	우정석	윤희진	이성희
권이수	김나현	김종현	남현우	박민규	배나식	송기정	안영찬	우정석	윤희진	이성희
권이주	김나현	김종현	남현우	박민규	배나식	송기정	안영찬	우정석	윤희진	이성희

아주사랑

연 120명, 250만원씩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아주사람’들의 따뜻한 문화입니다.

10주년을 맞은 <1-1-1 프로그램>.
이제 <아주사랑111>로
더 크고 단단하게 새로운 10년을 계획합니다.
00학번~10학번, 젊은 동문의 참여와
순수한 ‘아주사람’의 지원과 사랑을 기다립니다.



단 1만원이라도, 단 1회라도 깊이 간직하고
크게 키워내겠습니다.



함께하는 방법

전화	031-219-2107~9/2099로 전화주시면 기부상담 및 구두약정 가능
인터넷	대학발전팀 홈페이지(http://ajousarang.ajou.ac.kr)에서 온라인약정 클릭
이메일	ajousarang@ajou.ac.kr 로 약정의사 표시
팩스	031-219-1623으로 약정의사 표시
CMS 자동이체	본인이 직접 은행에 가지 않고도 일정기간 자동이체로 기부 참여 (세부사항 전화문의)
카카오톡 메시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아주사랑’ 친구 추가 후 문의

도전은 파란학기제의 핵심

인생은 파란학기제의 연속

누가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기획하고 설계하는 것.
기회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내고 도전해야 하는 것.

아주대학교 파란학기제는 세상과 참 닮아있습니다.

그래서 선배님들은 말합니다.

“너희들은 좋겠다, 파란학기제가 있어서!”

그래서 후배들은 준비합니다.

더 깊이있는 **앎**,

더 커다란 **삶**.



장강복 | 생물공학과 85학번
KBS <인간극장>, <한민족 리포트>등을
제작한 다큐멘터리리스트입니다.
2019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대상 수상작인 <KBS스페셜 -
플라스틱 지구>를 연출했습니다.



정다빈 | 국어국문학과 12학번 (좌)
송윤근 | 문화콘텐츠학과 12학번 (우)
파란학기제를 통해 웹드라마 제작 프로젝트에
도전, 학기 후 '밤부 (bamboo) 네트워크'를
창립했습니다. 애정자가 스스로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스토리텔링 시스템을 기획했습니다.

<파란학기제>는 수업의 주체와 주도권이 학생에게 주어지는 도전 학기 제도입니다.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목표와 도전 과제를 기획하면
이를 실현할 기회, 방법, 비용까지 지원하는 아주대학교의 학점 취득 프로그램입니다.



아주대학교

031-219-2021
www.ajou.ac.kr